





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4586.32 (+33.95)		947.92 (+3.86)
	금리 (국고채 3년)		환율 (한·달러)
	2.942 (+0.040)		1459.00 (+8.40)

가전업계, 소비 칼바람  
'플랫폼·AI'로  
돌파구 모색  
02



## 몸집 줄이는 홈플러스 채권단과 협의 남았다

###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벼랑 끝에 매달린 홈플러스가 회생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인가 후 인수·합병(M&A)을 위한 검토 및 협의에 나섰다. 다만, 대주주인 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의 구속 여부가 변수로 남은데다, 주요 점포 폐점으로 인한 노조 반발도 예상돼 회생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물류 센터 등 자산을 유동화해 채무를 변제하며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계획안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점포 정리하고, 물류센터 유동화  
회생계획안에 채권단 반대 안해  
노조 등과 세부방안 본격적 협의

MBK파트너스·메리츠증권 등서  
3000억 긴급운영자금 대출 제한  
경영진 4인 구속시 자금조달 변수

홈플러스는 노조,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와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우선 생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3000억원 긴급운영자금에 대해서 홈플러스 측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 및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회생기업(DIP) 대출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한 자가점포(향후 3년간 10개) 매각, 6년간 부실점포 41개 정리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방안도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증권의 선제적 고통분담을 전제로 국책 기관의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구상이며,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1436억원 규모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경영진 4인의 구속이 결정되면 긴급운영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고의적인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측은 검찰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사채권(ABSTB)은 신용증권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으로, 홈플러스 경영진은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회생의 성패가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 경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등 10만여 명의 생존권이 걸린 회생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노조 반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5개 점포를 추가로 줄이며 지속적인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탓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5개 점포(▲가양점 ▲장림점 ▲일산점 ▲원천점 ▲울산북구점)를 폐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5개 점포(▲계산점 ▲시흥점 ▲안산고잔점 ▲천안신방점 ▲동춘점) 영업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시스



손 맛잡은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병도(왼쪽부터), 진성준, 박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포

/뉴시스

### m-커버스토리

## 혼란의 국제정세 속 '국익중심 실용외교'

### 중 이어 日 가는李

이재명 대통령, 내일 일본 출국  
정상회담 등 총 5차례 대화 예정  
韓日間 '셔틀외교' 복원 가속화

현재 국제 정세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질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일본과 중국은 대만 문제로 서로 갈등하며 수출통제로 대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자유무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약화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

난 4~7일, 3박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다녀온 것에 이어, 오는 13~14일에는 1박2일로 일본을 방문한다. 미중·중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는 것은,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을 방문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번엔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만큼,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만나 '셔틀 외교'의 복원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 방문이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담과 만찬, 공동언론 발표까지 이어지는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소수 인사만 배석하는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1대1 환담 등 공식·비공식 대화를 포함하면 1박2일 동안 총 다섯 차례 대화가 예정돼 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삼성·SK 덕분에...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70조 '쑥쑥'

4분기 5% 이상 지분보유 상장사  
평가액 35% 급증한 266조 집계  
삼성·SK가 증가분의 68% 차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4분기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7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수익률이 높아진 만큼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 수익률이 1%포인트만 올라도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64년에서 2071년으로 7년 늦춰진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이 된 상장사들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9월 30일) 196조4442억원보다 69조

6944억원 늘어난 규모로, 35.48% 증가한 수치다.

한 분기 만에 주식 평가액이 70조원 가까이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평가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으로,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었다. 이를 더하면 47조2849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국민연금의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에서 양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5%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이 지난해 3분기 말과 지난 7일 기준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이 주식 평가액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7.75%, SK하

이닉스는 7.35%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원(잠정치)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63.95%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06.11% 상승했다.

반도체에 이어 평가액이 많이 증가한 종목은 SK스퀘어(2조9595억원), 현대차(2조281억원), 삼성에프스홀딩스(1조1618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전체 연금 수익률도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투자 수익률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수익률 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메트로 한줄뉴스



▲이혜훈, 子 병역특혜 의혹 제기에 “불법·부당한 사항 전혀 없어”  
▲이준석 “장동혁·조국 돈공천 특검 연석회담하자” 장동혁 “조건 없이 수용”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이준석 연석회담 제안에 “국힘에 ‘도주로’ 제시, 부적절”  
▲“성추행 의혹” 장경태 “무고는 중대 범죄…왜곡 주장 책임 물을 것”

▲與 “김병기, 애당의 길 고민해보길…‘자진 탈당’ 요구, 애당심 발로”  
▲정청래 “지도부 완전체 구성해李정부와 한몸·한뜻으로 움직일 것”



# 가전업계, 소비침체 칼바람… ‘플랫폼·AI’ 돌파구 모색

K-기업, 올해 수익성 회복 초점

삼성전자 ‘비전 AI캠패니언’강화  
LG전자 인도 등 신흥시장 다변화

국내 가전업계가 4분기에도 실적 한파를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계절적비수기 영향에 더해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 원가 부담 증가, 미국 관세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이에 국내 가전 기업들은 매출 확대보다는 단가와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2026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를 통해 가전 부문의 수출 체감경기가 97.9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96.5) 대비 소폭 개선되긴 했으나 수출 여건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수출 여건 개선이 더딘 가운데 내수 시장도 위축된 흐름을 보이면서 가전업계의 실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삼성전자



LG 올레드 예보 W6.

/LG전자

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잠정 발표했다. 사업부별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디바이스솔루션(DX) 부문이 실적을 견인한 반면 영상디스플레이(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를 합한 소비자가전(CE) 사업부문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23조 8538억원, 영업손실 10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약 200억원대 적자로 분석됐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LG전자가 분기 기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9년만이다. 업계에서는 생활가전(HS) 사업본부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글로벌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가전업계가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이에 가전업계는 매출 확대보다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TV 시장의 정체

와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플랫폼 경쟁과 AI 기능 차별화가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TV출하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하드웨어를 넘어 플랫폼과 AI 기반 서비스를 통한 반복 수익 창출이 프리미엄 TV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AI플랫폼인 ‘비전 AI캠패니언’을 한층 강화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과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서비스를 지원한다. LG전자는 2026형 LG TV에 탑재되는 독자 스마트 TV 플

랫폼 웹OS26에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외에도 구글 제미니를 더해 맞춤형 AI 서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전 분야에서는 인도 등 신흥시장을 성장 축으로 삼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방갈로르 등에 R&D 센터를 세워 엔지니어들과 현지 맞춤형 가전 개발에 매진 중이다.

LG전자는 인도를 주요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의 웃감을 섬세하게 관리해 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 생활 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분기 비수기 영향과 대외 변수들이 겹치면서 가전업계에 실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은 매출 확대보다는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방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그룹, 올해 첫 토요일 사장단 회의

## 中 사업전략 재점검… 생산성 혁신방안 모색

최창원 SK수펙스 의장 등 참석  
그룹 차원 상생협력체계 고도화

SK그룹이 올해 처음으로 토요일 사장단 회의를 열고 중국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생산성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SK가스 사옥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차원의 전략글로벌위원회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을 비롯해 서진우 중국총괄 부사장,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유영상 SK수펙스추구협의회 AI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SK 사옥 전경.

/SK

사장단은 중국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상생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갈등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진 점도 중국 전략 재검토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SK그룹은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1차관을 SK차이나 신임 사장으로 영입하며 중국 사업 관리와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전략과 함께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지속과 생산성 혁신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의사결정 고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행 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상생 협력 방안 역시 함께 검토됐다.

/원관희 기자 wkh@

## 서울 인구 15년새 100만명 이상 감소

고령화·집값 상승 등 감소세 영향  
같은기간 경기 인구 200만명 증가

서울 인구가 지난 15년 사이 무려 1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서 시작됐다. 반면 경기 인구는 같은 기간 200만 명 가까이 늘었고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수도 거주민 수급감의 배경에는 고령화뿐 아니라 집값 급등에 따른 시민 다수의 타 지역 전출 등이 꼽힌다.

11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인구는 92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6130명,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3만2000명 감소했다.

2010년 10월 정점을 찍고 쏙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당시 1032만 명에 달했으나 작년 말 기준으로 102만 명 적다. 15년 만에 9.96% 감소한 것.

그 이전의 역사적 정점은 1992년(1096만 명)이었는데, 증가세가 멎었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완만히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반등 흐름은 끝을 맺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유지될 시 서울 인구는 2029년 또는 2030년에 800만 명대로 내려앉게 된다. 900만 선이 깨지면 1980년대 초 수준까지 퇴보한다.

이에 반해 경기 지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373만 명으로, 15년 전(1174만 명)과 비교해 198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기 인구는 기록을 매월 경신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명 중 1명 이상(26.8%)이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두고 있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0% 미만의 서울(18.1%)과 대비된다.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경기도는 17.7%로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또 그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서울보다 경기에서 훨씬 많았다.

전국 총인구도 지난 15년간만 놓고 보면 증가했다. 지난해 말 5111만 명으로, 2010년 10월의 5047만 명보다 64만 명 많다.

그러나 총인구 역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에 비해서는 74만 명이나 줄었다.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광주, 경북 등지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쟁점법안 추진·지방선거 실무 등 역할 막중 (2차 특검·반도체법 등)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공천현금 수수 의혹 수습 등 과제 산적  
리더십 증명시 연임 가능성 열려 있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추진하고 반도체특별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쟁점법안에서 리더십으로 의원들을 이끌고, 대야 협상력으로 야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는 약 4개월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실무를 맡게 돼 역할이 중요하단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 처리에 성공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이끌면 이를 발판으로 연임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현행 민주당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연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청래 당 대표가 ‘2차 종합 특검’을 민주당이 처리하는 새해 첫 법안으로 밝히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의사를 밝힌만큼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민주당 공천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는 3개의 특검법안을 다뤄야 한다. 민주당은 법 외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도 설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 연말 이어진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나 3차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지만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도 새롭게 뽑히는 원내지도부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원내대표는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들이 민심과 괴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당의 입법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간 공천현금 수수 의혹이 터진 후사퇴한 만큼, 후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해당 의혹을 어떻게 관리할 지가 주요 과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의원에게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적으로 탈당의사가 없다고 밝힌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 압박을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인 12일 김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임 원내대표는 당에 드리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3명의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9명 중 총 4명의 당 지도부를 뽑는다.

당 내에서 계파색이 열은 것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 후보 4명이 출마해 관리형 원내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친명계 후보 2명과 친청계 후보 2명이 입후보해 친명·친청 후보가 모두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미·일·중 격랑 속… 이재명표 ‘관리 외교’로 국익 챙긴다

## ‘실행력’ 시험대

국력 바탕 ‘극단 실용’ 외교로 선회  
미·일·중 입장 달라도 기준은 ‘국익’  
갈등은 관리하고 사안마다 실리 챙겨  
단기 안정엔 효과, 압박 커지면 한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에도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란드 편입이란 야욕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5년째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2023년부터 무력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에선 중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두 달 이상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간 갈등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모두 우리나라와 밀접하다. 한미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정과 협력 범위 확장으로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까지 발전해왔다. 안보·경제 모두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동반자 단계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바로 인근에 위치한 큰 국가인 만큼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몇가지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도 한국에는 고민거리다.

한일은 좀 복잡하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역시 이웃 국가라서 정치·경제·문화·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나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일제가 행한 일들, 일방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동 등이 한국 국민에게는 불편함을 안겨주는 ‘가깝고도 먼 나라’다.

이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진영에 서기보다 주요국 사이에서 국익을 기준으로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상 현안이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 실용외교가 실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 시간)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위기 관리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국력 상승 가능한 ‘극단적 실용주의’… 갈등의 ‘관리’로 얻어내는 국익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와 이전 정부의 차이점을 꼽자면 ‘극단적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 국력이 상승한 만큼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의미다. 국력이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실용외교를 추진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는 새로운 노선보다는 위기 대응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다. 가치와 이념을 전면에 내세워 진영을 선명히 구분하는 것보다, 사안마다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구조화되고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실용외교’란 갈등의 관리이며, 이를 통해 국익을 얻어낸다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직전 윤석열 정부는 한쪽을 ‘선택’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웠고, ‘자유·민주’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국가에 날을 세워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갈등 관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 ◆미일중 간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이 중심

주요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각기 다르다. 미국은 ‘안보 동맹’을 기반으

로 한 포괄적 동맹 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자유무역협정(FTA)는 무력화되고, 관세 협상을 지속해야 했다. 통상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지속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를 통해 관세를 25%까지 낮추고, 한미 조선통상 협력을 제치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나서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하는 중이다. 관세와 대미투자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한다는 이득을 얻은 셈이다.

## 李 “韓,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

### 》1면 ‘혼란의 국제정세 속…’서 계속

이시바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 만난 횡수까지 합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섯 번째로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면서, 한일 간 ‘셔플 외교’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7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하고, 서해 구조물 문

일본의 경우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도 ‘과거사’와 ‘협력’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접근한 바 있었으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지키기 쉽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경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둔 ‘제3자 변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한 합의를 뒤집을 경우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과거사·독도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인사인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중국은 예전과는 달라졌다. 경제 협력의 형태가 다르다. 이전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력, 중국의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수직적 분업이었다면, 이제는 전략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또 정부는 중국이 북한과 밀착된 국가인만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나 한한령 등 양국 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다.

### ◆실용외교, 현 국제정세에서 단기적 리스크 낮추는 데 효과적

결국 현재 국제 정세는 협력보다 갈등이 더 부각되는, 그야말로 ‘정글’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선택한 것도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셈이다. 아울러 실용외교는 단기적으로 외교 리스크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 정세에서 급격한 노선 변화나 감정적 대응을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원칙과 가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 외교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강대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관리 외교’의 공간은 좁아진다.

한국이 균형된 외교와 가교 역할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미중일 갈등 등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에서 국제질서 전환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국 정부는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양쪽 다 관리하며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익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발언했다.

/서예진 기자

# 연금개혁 과제 ‘산적’… 국민연금 구조개혁·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보험료율 인상·크레딧 확대 올해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특위 연장… 자동조정장치 논의  
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재점화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지속한다. 크레딧 제도(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장치) 확대,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구조개혁안도 논의한다. 담보 상태에 놓인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재개됐다.

### ◆‘연금개혁’ 올해부터 본격화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겠다”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 씩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르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늘어난다. 또한 국가의 국민

연금 지급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

군 복무나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군 복무 시 6개월의 가입을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씩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최대 50개월의 상한도 폐지한다.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한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넘으면 최대 50%

까지 지급액을 감면하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편해 감액 구간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까지 상향한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도 지속한다. 여·야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금특위는 작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재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운용한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4625억원이다. 적립액의 77.1%에 해당하는 354조3758억원이 원리금 보장형에 집중

됐으며, 원리금 비보장형에 투자된 금액은 105조867억원(22.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개인형 IRP 3.05%)를 기록했고, 원리금 비보장형은 연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의 수익률 평균을 냈다. 비보장 수익률은 3~10년 수익률에서도 연 3.72~11.06%를 기록해 연 2.16~3.4%를 기록한 보장형 수익률을 모든 기간에서 앞질렀다.

비보장형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80%에 가까운 적립금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투자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제도적 무관심 때문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LG, AI 모델 ‘K-엑사원’ 공개… 세계 7위·국내 1위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서 우수성능 입증  
평균점수 72점… 5개팀 중 최고점  
‘고효율·저비용’ AI 생태계 저변 확대  
오는 28일까지 API 무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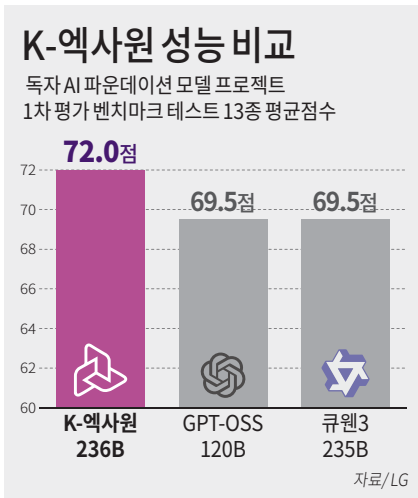
LG AI연구원이 인공지능(AI) 모델 ‘K-엑사원(EXAONE)’을 공개하며 글로벌 프런티어 AI 모델 패권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 기준인 13개의 벤치마크 테스트 중 10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체 평균 점수도 72점을 기록해 5개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K-엑사원’은 32점을 기록해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세계 7위, 국내 1위에 올랐다.

현재 오픈 웨이트 모델 글로벌 톱 10



이 중국(6개), 미국(3개) 모델로 채워진 상황에서 ‘K-엑사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프라 상황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 1차수 K-엑사원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K-엑사원’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오픈 웨이트로

공개한 직후 글로벌 모델 트렌드 순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또 ‘K-엑사원’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 기관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LG AI연구원은 2024년 ‘엑사원 3.5’를 시작으로 지난해 ‘엑사원 딥’,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4.0’까지 국내 기업 중 최다인 5개 모델을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매년 AI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를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K-엑사원’은 LG AI연구원이 지난 5년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해 쌓은 기술력을 집약해 만든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단순히 데이터 양만 늘리는 방식이 아닌 성능은 높이고, 학습 및 운용 비용은 낮추는 고효율 저비용으로 모델의 구조 자체를 혁신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4.0에서 검증된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고도화해 ‘K-엑사원’에 적용했다.

어텐션은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LG AI연구원은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이 특정 범위의 정보에 집중하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과 숲을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글로벌 어텐션’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어텐션’을 고도화해 메모리 요구량과 연산량을 엑사원 4.0 대비 70% 절감했다.

LG AI연구원은 AI의 언어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큰라이저도 고도화했다. 토큰라이저는 AI가 이해하는 단위인 토큰으로 문장을 쪼개는 기술이다. LG AI연구원은 학습 어휘를 15만 개로 확장하고, 자주 쓰는 단어 조합은 하나로 묶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토큰라이저 고도화로 ‘K-엑사원’이 기존 모델 대비 1.3배 더 긴 문서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하나의 토큰을 처리하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는 멀티 토큰 예

측(MTP) 영역을 설계해 추론 속도를 기존 모델 대비 150% 높였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K-엑사원’은 효율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모델 설계를 통해 고가의 인프라가 아닌 A100급의 GPU 환경에서도 구동할 수 있다”라며, “인프라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도 프런티어급 AI 모델을 도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AI 생태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오는 28일까지 ‘K-엑사원’ API를 무료 제공한다. AI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사양 인프라와 전문 코딩 지식 없이도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형 플랫폼(PaaS)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정규 LG AI연구원 에이전틱 AI 그룹장은 “‘K-엑사원’은 자원의 한계 속에서 독자적인 기술 설계로 글로벌 거대 모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지난해 1인당 GDP, 3년 만에 퇴보할 듯… 원·달러 환율 급등 영향

(3만6107달러)

전년비 0.3% 줄어든 것으로 추산  
경상GDP, 1.8조 달러… 0.5% ↓  
22년 만에 대만 역전 가능성 커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 총생산)가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저성장에 더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대비 0.3% (116달러)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의 뒷걸음질은 3년 만이다.

지난해 달러로 환산한 경상GDP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이다. 이 역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락에서 2025년도 경상성장률을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지난해 1인당 GDP가 퇴보하는 이미지.

3.8%로 추산했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의 2024년 경상GDP(2556조8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654조180억 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 달러화로 변환하고, 국가데이터처 집계 총인구

(5168만4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으로 3만7503달러로 반짝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에 따라 3만4810달러로 다시 퇴보했다.

작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달러 환산 GDP가 더 축소됐다. 환율은 전년 평균(1363.98원)보다 58.18원(4.3%)이나 올랐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1인당 GDP가 5년 만에 다시 3만7000달러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환율이 작년 수준이라면 1인당 GDP는 3만7932달러로 예상된다. 환율이 1400원 선까지 내려가면 1인당 GDP는 3만8000달러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은 대만에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하순 제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자국의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달러는 원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KT, 위약금 면제조치 후 ‘누적 이탈자 21만명’ 돌파

지난 10일 하루 이탈자 3.3만명  
이탈 가입자, SKT 쏠림 현상  
내일 면제 종료까지 이탈규모 정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 두 번째 주말을 맞았지만, 가입자 이탈 규모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누적 이탈자 수는 이미 21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이탈자 수도 처음으로 3만 명 선을 돌파하며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1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하루 동안 발생한 번호이동 건수는 총 6만36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KT를 떠난 가입자만 3만3305명에 달한

다.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일일 이탈 가입자가 3만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하권의 강풍과 악천후 속에서도 위약금 부담을 던 가입자들이 대거 유통망으로 쏟아져 나온 결과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흘간 KT를 이탈한 누적 가입자는 총 21만6203명이다. 지난 6일 10만 명을 돌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20만 명 선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 기록한 16만6000여 명의 이탈 규모를 이미 압도적으로 추월한 수치다.

이탈한 가입자들의 행선지는 SK텔레콤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누

적 이탈자 중 64.71%에 해당하는 13만9901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LG 유 플 러 스 로 는 4만8623명(22.49%), 알뜰폰(MVNO)으로는 2만7679명(12.80%)이 옮겨갔다. 10일 하루 기준으로도 SK텔레콤이 2만2193명의 KT 가입자를 흡수하며 압도적인 승기를 잡았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강세는 과거적 인 재가입 인센티브 제도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이전의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그대로 복구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장기 가입 혜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K



KT 본사 전경.

/KT

T 이탈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란의 중심에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유통망의 과열 경쟁도 한몫하고 있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로 앞두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돌려받는 ‘마이너스 폰’ 매출까지 등장했다. 최신 기종인 ‘아이폰 17’ 역시 기기값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개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이탈 규모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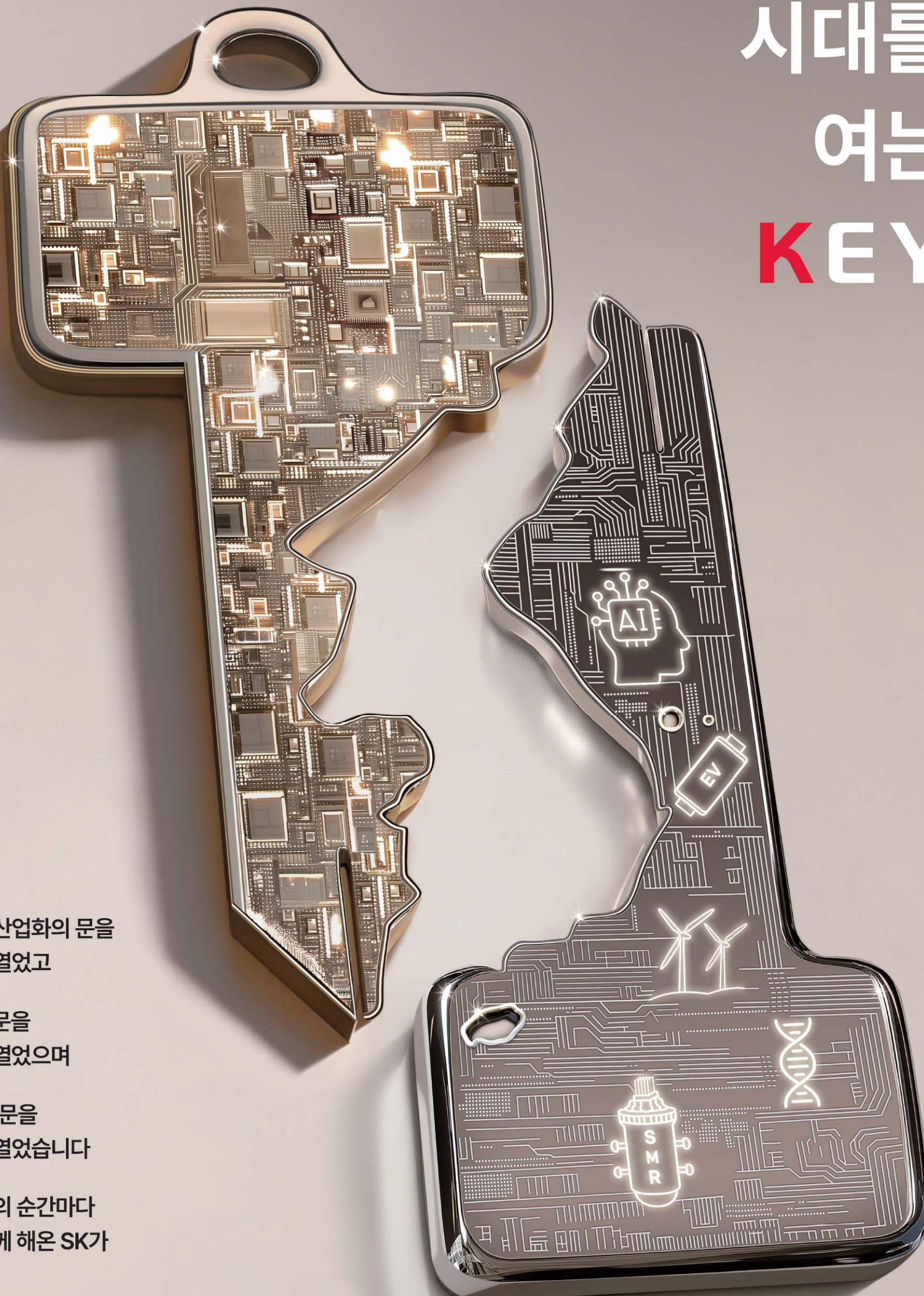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 ‘보수 연대’ 외치는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적극 러브콜

주황색 넥타이 매고 손 내민 장동혁  
계엄 사과·쇄신안 등 외연확장 나서  
이준석, 야3당대표 연석 회담 제안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손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모집하며 6·3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 전략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서 중도보수 지지층의 표를 받으면 박빙인 선거구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시절, 국민의힘과 전신 보수 정당 최초로 30대에 당 대표에 오르는 등 청년층 남성 지지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내놓는 등 외연확장 전략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두 정당의 선거 연대가 실현될 지, 어떤 방식으로 연대가 이뤄질 지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하며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다. 보통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중요 행사에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나오는 것과 달리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회에서 “폭넓은 정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만남을 위해 물밑 조율을 나섰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 내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추후 만남에서 연대 조건과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대 가전 행사 ‘CES 2026’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 연석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 연석 회의를 두고 “민주당의 전채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동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공천이라는 명징한 혐의 앞에서도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면서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묻개지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 법치를 형해화하는 것을 오래 지켜볼 수 없다. 김병기·강선우·동공천이 민주당의 어디까지 퍼진 병증인지 뿌리째 뽑아내고 일벌백제하려면, 강도 높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나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에 이미 회동이 얘기된 바 있었고, 이후에 조국혁신당과의 회동까지 제안한 것”이라며 “원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태도도 살펴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자회담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회담 제안에 대해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3자 회담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 반응이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실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며 돈공천 문제와 관련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도주료’를 제시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이혜훈 청문회, 하루에 끝낸다… 野 낙마 ‘정조준’

국힘, 재경위에 이종욱·박수민 투입  
민주당, 잇단 의혹에 부정 인식 커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지정하며 강도 높은 청문을 준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는 등 이 후보자는 험난한 청문회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구를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재산 형성 과정을 추궁하며 최소 이틀간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재경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오는 19일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여야 위원에게 늦은 시간까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낙마’를 위해 의원들을 재경위에 사·보임 시키면서까지 전력을 강화했다. 기존 유상범·이인선 의원이 빠지고 경제 관료 출신인 이종욱·박수민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의혹이 총 20가지나 된다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이혜훈 후보자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갑질과 폭언이 담긴 그 목소리 또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라며 “최종 인사관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이는 검증 실패에 대한 묵인에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추가 파악해서 제기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인턴 보좌 직원 폭언 및 보좌진 사적 심부름 동원 ▲아파트 청약점수 뺑뺑이 의혹 ▲반포 아파트 재산신고 축소 의혹 ▲영종도 개발 예정지 투기 의혹 ▲배우자

의 검직금지 위반 의혹 ▲장남 논문에 아버지가 공저자 등재로 ‘아빠’ 찬스의 의혹 등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청문회까지는 가는 모습이지만, 이 후보자의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1.6%,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5명은 갑질·투기 논란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 묻는 질문은 ‘적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하지 않다’는 47%였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16%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37%로 적합하다는 28%의 의견을 앞섰다. /서예진 기자 syj@

## 北 ‘한국발 무인기 침범’에李 수사 지시

靑 “북한 도발·자극 의도 없어  
긴장 완화·신뢰 제고 노력 지속”

연초부터 남북이 무인기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북측은 한국 무인기가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측은 “도발 의도가 없다” “군의 무인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대북 관계 진전에 노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무인기 공방이 향후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을 도

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



북한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했다. /뉴시스

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북측은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무인기가 ‘군사용’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당시 중국 측에선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인내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난 정부 있었던 일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북한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과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차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현지에서 연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고 엄청난 경제심과 적대심을 유발했다. 사실, 북한은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며 “꽤 오랜 시간 쌓아온 업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 HANA THE SOHO

##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라이프케어 복합 플랫폼 전환… 스스로를 ‘부스트업’ 해야”

##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 삼성생명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  
고객 만나는 매 순간 초격차 만든다”

“AI, 선택 아닌 경영 핵심 키워드  
조직내 체화위한 대대적 전환 필요”

삼성생명이 새해 경영 화두로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과 ‘라이프케어 복합 금융 플랫폼’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은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익숙함에 기대지 말고 관성에 머무르지 말자”며 “스스로를 ‘부스트업’ 해 변화의 속도에 추월당하지 않는 한 해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 ◆ ‘디테일’과 ‘고객 최우선’

홍 사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만의 디테일’을 화두로 꺼냈다. 그는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양적 성장보다 체질을 바꾸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객과 마주하는 매 순간의 ‘작은 차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과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생명

이’가 초격차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을 둘러싼 규율이 촘촘해지고 판매채널 경쟁이 격화하는 국면에서 결국 승부처는 상품 하나가 아니라 상품·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누적되는 고객 경험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고객 최우선 가치’는 위기 대응의 언어로도 읽힌다. 홍 사장은 “고객의 가치가 곧 회사의 가치”라고 못 박고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고객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관리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에게 정말 이로운가’를 항상 물어봐 달라”며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찾아 예방하는 ‘선제적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보험사가 민원·분쟁 때문에 비용과 평판 대가를 동시에 치르는 만큼, 성장 논리보다 ‘신뢰의 바닥’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메시지다.

#### ◆ 보험 넘어 ‘라이프케어 플랫폼’

홍원학 사장의 또 다른 당부는 ‘미래

성장축 선점’이다. 그는 “이제 고객들은 보험 하나만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강·자산·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케어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이 연결되는 생태계, ‘라이프케어 복합 금융 플랫폼’이 미래의 삼성생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전환은 보험의 역할을 사고 이후 보상에만 묶지 않고 건강관리와 노후 준비, 일상 속 자산관리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전략의 엔진으로는 인공지능(AI)이 제시됐다. 홍 사장은 “AI는 선택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 키워드”라며 “AI를 느끼는 수준을 넘어 조직이 체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빅테크를 뛰어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존의 관성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보자”도 했다.

실행 근거도 있다. 삼성생명은 AI 기반 OCR(광학문자인식) 체계를 고도화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47종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주요 문서 7종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입력하는 방식으로 비정

형 서류 처리를 확대해 왔다. 콜센터에서는 10개 음성봇을 통해 월 10만건 수준의 상담 콜을 처리하는 등 대고객 영역에서도 자동화를 넓히고 있다. ‘플랫폼’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디지털 역량이 본업 전 과정에 얼마나 깊게 스며드는 지가 관건이다.

성장축의 또 다른 기반은 건강·연금이다. 2025년 2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76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6.8% 늘었고, 이 중 건강보험 비중이 85%까지 확대됐다. 노후 자산 부문에서는 2025년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1조원 규모로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는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라이프케어’가 건강에만 머물지 않고 자산·연금과 결합해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느냐가 2026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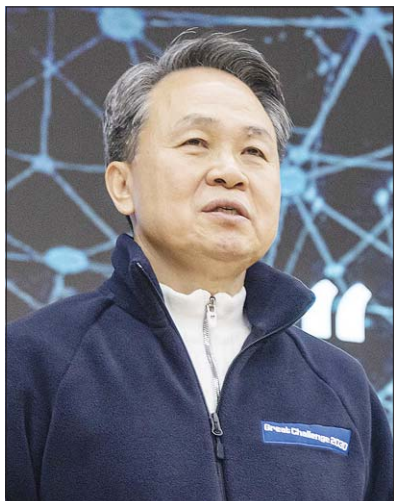
홍원학 사장은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이 연결되는 생태계, ‘라이프케어 복합금융플랫폼’이 미래의 삼성생명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금융그룹 수장 경영전략

### “여러분이 혁신 불씨 되어 신한 미래경쟁력 높여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2026년 경영전략회의 개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여러분이 혁신의 불씨가 되어 신한 미래 경쟁력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경영진의 노력을 당부했다.

진 회장은 작년 1월 경영포럼에서 ‘키케로의 의무론’을 통해 ‘금융인의 의무’를 화두로 꺼낸 데 이어,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리더들이 혁신 추진에 대한 ‘주체적 사고’와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기업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필수 전제 하에, 기업의 리더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강한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블루캠퍼스에서 그룹 경영진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첫째 날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반드시 다가올 금융의 미래’ 강연을 통해 신한금융이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공유하며 시작했다. 이어 사전 과제로 부여된 ‘나만의 가짜 혁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경험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리더의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주제로 글쓰기와 이미지메이킹 특강도 열

렸다.

둘째 날은 참석자 전원이 자기만의 만다라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만다라트를 통해 리더로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향후 의지를 다졌다.

진옥동 회장은 2박 3일간 경영전략회의를 시작부터 끝까지 별도 사회자 없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이끌었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그룹 경영 슬로건 ‘그레이트 챌린지(Great Challenge) 2030, 미래 금융을 향한 대담한 실행’을 발표하고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AX·DX 가속화 ▲생산적 금융 실행력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미래 전략산업 선도를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AI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 전략·혁신가 거듭나길”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그룹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기술을 전략적 무기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고객으로의 ‘확장’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전략가이자 혁신가로 거듭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상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그룹 최고경영자(CEO) 특강을 통해 “모든 해답은 고객에게 있으며, 금융의 본질인 신뢰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고객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양 회장을 비롯한 260여 명의 그룹 경영진이 참석했다. ‘그룹의 구조적인 레벨-업(Level-Up)을 위한 전환(Transition)과 확장(Expansion)’이 주제였다.

KB금융은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정비에 집중한 ‘빌드-업(Build-Up)’ 단계와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이뤘던 ‘밸류-업(Value-Up)’ 단계를 거쳐 앞으로는 고객·사회·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레벨-업(Level-Up)’ 단계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워크숍은 ‘2026년 그룹 경영전략 방향 및 경영계획’ 발표로 시작했다.

전략담당(CSO) 조영서 부사장과 재무담당(CFO) 나상록 전무는 ▲사업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 ▲새로운 시장 및 고객 확장을 위한 그룹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AX(AI Transformation)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을 넘어 그룹의 미래 전략 전반에 내재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과 사회에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한 그룹 WM(자산관리)과 SME(기업금융) 세션이 진행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분양 캘린더

### LH 과천주암C1 등 전국 7005가구 공급 일반분양 1630가구

1월 둘째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631가구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다샵분당센터로’,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 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이번주 청약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원에 공공분양 아파트 ‘과천주암C1’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동, 총 1338가구 규모다. 공공분양주택 120가구와 신혼희망타운 812가구, 행복주택 4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분양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4㎡ 24가구,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46·55㎡ 216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인근 양재천, 청계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양재대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서울 진입 및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코스트코, 이마트 등 대형 리테일 시설이 위치하고, 도보권 내 주암초·중(가칭)이 2028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개관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는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115㎡, 총 3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위치해 있다.

/안상미 기자



# 현대제철, 美 제철소 설비·부지 확보… 3분기 착공 ‘청신호’

다니엘리와 설비 공급계약 체결  
美 정부, 직접 제철소 부지 매입  
2029년 양산 목표… 현지사업 박차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EAF)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핵심 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제철소 부지를 직접 매입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올해 3분기 착공 목표를 향한 실행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설비 발주와 부지 확보가 동시에 마무리되며 오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한 미국 첫 생산기지 구축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11일 미국 재활용·자원순환 산업 전문매체 리사이클링 투데이(Recycling Today)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이탈리아 설비업체 다니엘리와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제철 및 직접환원철(DR



현대제철 충남 당진 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I)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다니엘리는 루이지애나주에 건설되는 EAF 일관제철소에 에너지론(Energiron) 기반 DRI 플랜트, 2차 야금 설비를 갖춘 전기로 2기, 주조기 2기, 슬래브 재가열로 2기를 공급한다. DRI 플랜트에는 다니엘리와 테노바(T

enova)가 공동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며, 천연가스·수소 환원재 사용과 이산화탄소 제거 설비를 통해 기존 고로 대비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인다. 현대제철은 생산된 DRI를 전기로에 투입해 자동차 강판용 고부가가치 슬래브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역 경제 전문매체 배턴루지 비즈니스 리포트는 지난 7일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제철소 예정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고 전했다. 미시시피강 인근 어센션 패리시 일대 1700에이커 부지가 약 9100만달러에 주정부 소유로 이전됐으며, 해당 부지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로 활용된다. 주정부는 부지 매입과 함께 도로 개선 및 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도 이번 투자의 전략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미국 산업·임지 전문매체 ‘비즈니스 퍼실리티즈’는 현대제철의 루이지애나 철강 생산시설 프로젝트를 ‘2025년 플래티넘 딜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하고 지난 5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1300개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 자본 투자 규모, 지역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상으로 현대제철의 투자가 미국 제조업 유치 정책의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현대제철은 현대차·기아·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루이지애나에 총 58억달러 규모의 EAF 기반 일관제철소를 건설한다. 올해 3분기 착공해 오는 2029년 양산을 목표로 하며, 완공 시 연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강판용 슬래브 등을 생산해 미국 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측은 이번 투자가 보호무역·원산지 규제 대응과 현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지 확보와 주설비 계약이 동시에 마무리되면서 착공 준비가 본격화돼 올랐다”며 “양산 일정에 맞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 CES 2026

## 문혁수 “자율주행 분야 등 ‘위닝테크’ 확보”

(LG이노텍 사장)

고수익·고부가 사업구조 재편 강조  
“LG이노텍, 부품 아닌 솔루션 기업”

“LG이노텍은 더 이상 부품 아닌 솔루션 기업이다. 올해는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앞세워 고수익·고부가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 해를 만들 것이다.”

LG이노텍 문혁수 사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사장은 “올해는 고수익·고부가 사업 중심의 ‘하이 퍼포먼스 포트폴리오’ 사업구조를 정착시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본질적인 사업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 육성을 가속화해 미래 LG이노텍을 책임질 확실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복합센싱, 유리기관



문혁수 LG이노텍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간) LVCC LG이노텍 전시 부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LG이노텍

등 ‘위닝 테크(실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기술)’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환(AI)을 가속화해 경쟁력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사장은 지난해 12월 기관소재사업부와 전장부품사업부를 각각 ‘패키지솔루션사업부’, ‘모빌리티솔루션사업부’로 재편했다. 문 사장

이 의미하는 ‘솔루션’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총칭한다. 기존 부품 하나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포괄한 개념이다.

미래 먹거리인 유리기관 사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고수익 패키지솔루션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반 기술인 유리기관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유리기관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LG 그룹 내 계열사들과 협력 시너지를 통해서도 유리기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이 빅테크 기업과 협업 중인 유리기관 시제품은 2028년 양산이 목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미국 R&D센터에 유리기관 개발을 위한 장비 도입을 마쳤고, 구미 FC-BGA 양산 경험을 통해 확보한 빌드업 기술을 유리기관에 접목해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전자, TV·로봇 등 최고 제품상 휩쓸어

올레드 에보·클로이드 등 호평

LG전자가 CES 2026에서 해외 주요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최고 제품상을 수상하고 호평을 받았다.

11일 LG전자에 따르면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에보(evo) W6’와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D)’ 등 제품이 혁신 기술로 관람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유럽 IT매체인 엔가젯은 “올해 CES 2026에서 많은 TV를 봤지만, LG 올레드 에보 W6처럼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제품은 없었다”며 LG 올레드 에보 W6를 ‘최고의 TV’로 꼽았다.

IT매체 지디넷도 올레드 에보 W6에 대해 “CES 2026에서 단연코 주목 받은 제품으로, 만기 어려움을 정도로 얇은 디자인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으며, 씨넷은 “전시회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TV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CES 2026에서 처음 선보인 ‘LG 마이크로 RGB 에보’도 글로벌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은 “풍부하고 생생한 색감과 놀랍도록 아름답고 밝은 화질을 제공한다”며 이 제품을 ‘최고의 테크 제품’에 선정했다.

CTA로부터 스마트홈 분야 혁신상을 수상한 LG 클로이드도 외신의 찬

사를 받았다.

IT매체 안드로이드헤드라인은 CES 2026에 출품된 전체 제품 중 최고의 제품으로 LG 클로이드를 뽑았다. 매체는 “로봇이 옷을 개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기를 돌리는 등 다른 가전까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CES 2026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며 “클로이드가 갖춘 실질적인 유용성과 첨단 기술은 CES 2026 최고 기술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IT매체 디지털트렌드는 ‘최고의 기술’ 중 하나로 클로이드를 꼽았다. 매체는 “CES 2026에 등장한 많은 로봇 가운데 클로이드가 가장 화제가 됐다”며 “다양한 LG 가전제품과 상호작용하며 집안을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EV 외장

## 현대차·기아, 유럽 시장 전략모델 선포

###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

현대차 스타리아 EV, 기아 EV2 공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전략 모델을 공개했다.

현대차·기아는 아이오닉5, 캐스퍼 EV, EV3 등에 이어 새로운 전동화 모델을 추가하며 중국의 상하이차(SAIC)와 비야디(BYD) 등과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지난해 유럽 친환경차 시장은 374만대(19.5%)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9일(현지시간) 개막한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에서 스타리아 EV와 EV2를 각각 공개했다.

스타리아 EV는 현대차 전기차 가운데 가장 큰 전기차다. 현대차가 유럽에서 스타리아 EV를 공개한 것은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유로 7 도입 등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기존 디젤 모델로는 현지 공략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모터쇼에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시장을 위해 개발한 아이오닉3도 올 하반기 현지 시장에 출시할 방침이다.

기아도 이번 모터쇼에서 유럽 시장 전략 모델 EV2를 공개했다.

EV2는 기아가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EV3보다 작은 전기차로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 모델이다. EV2는 아이오닉3와 마찬가지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유럽 현지화한 모델이다. 기아는 2월부터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2를 본격 생산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EV2는 기아 전용 전기차 중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가장 생동감 넘치는 실내 경험과 감성적 디자인을 갖춘 모델”이라며 “차급을 초월한 넓은 공간과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으로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 EV2 외장.



# 중기부, ‘SVC’ 실리콘밸리 출범… 연 200개사 美 진출 지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한벤투·중진공·창진원·기보 입주  
韓 스타트업 20개사도 함께 상주  
현대차·네이버·아산나눔 등 협업  
향후 日·싱가포르에도 추가 개소  
미국 HP와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내 ‘HP Garage 2.0’ 운영 추진

미국 실리콘밸리에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종합적으로 돕는 첫 글로벌 거점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SVC)’가 문을 열었다. 민관이 힘을 합친 미국 SVC에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20개사가 입주한다. 또 현대차, 네이버, 아산나눔재단이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류, 투자, IR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년 200개 이상의 한국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등 글로벌 혁신거점에 SVC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오른쪽 4번째)과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왼쪽 4번째)가 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커팅식을 하고 있다. /중기부

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을 비롯해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입주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김남선 네이버 전략투자부문 대표, 정호근 현대차 부사장 등 국내·외 기업인, 투자자와 관계자 등 2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SVC를 열기 위해 지난 2년간 민간 전문가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입주 지원기관과 현지에 진출해 있는 민간 기관·기업과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공유, 투자협력 등을 협의하며 준비해 왔다.

실리콘밸리 SVC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그동안 분산된 중기부 해외거점들을 처음으로 통합하고, 현재 국내 17곳에서 운영중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해외에 설치한 첫 사례다. 벤처·스타트업과 VC 등이 중장기 미국진출 및 단기 출장시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제공한다.

개소식에선 입주 지원기관간 MOU뿐

만 아니라 입주 지원기관과 아산나눔재단, 네이버, 현대차 간 협력 MOU, 한국벤처투자와 네이버 간 MOU를 체결해 향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1차관은 “실리콘밸리는 매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위로 선정되는 곳으로 글로벌 답테크, 투자자들이 밀집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이라면서 “중기부는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SVC를 중심으로 한인 창업가 커뮤니티와 협력해 국내

## ‘프렌치 카리스마’ 장착… 푸조, 디자인 혁신

올 뉴 3008, 8년 만에 풀체인지  
패스트백 루프 적용… 공력성능 강화  
사자발톱 DRL·파노라믹 아이-콕핏  
디자인 디렉터 “차별화는 디자인”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디자인은 브랜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디자인을 둘러싸고 호불호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간다. 즉 차량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첫인상과 시장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뛰어난 성능을 갖춘 모델이라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출시와 함께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델이 있다. 8년 만에 풀체인지로 돌아온 푸조의 대표 준중형 SUV ‘올 뉴 3008’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7월 국내 출시된 올 뉴 3008은 푸조의 새로운 전략인 ‘프렌치 카리스마’를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푸조 프랑스 본사에서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마티아스 호산 디자인 디렉터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올 뉴 3008의 디자인 스토리를 들어봤다. 호산 디렉터는 “자동차 산업 역사에서 지금까지 경쟁이 치열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모든 브랜드가 디자인을 잘하고 차를 잘 만들기에 푸조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고민이 크다”며 “새로운 브랜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에 역사적 요소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레시피로 멋진 푸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푸조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HEV) 모델은 국내 출시와 함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푸조 전체 판매량을 이끌고 있



마티아스 호산 푸조 디자인 디렉터와 올 뉴 3008. /푸조

다. 7월 출시 후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진 9월 판매량을 보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51대 판매되며 푸조 전체 실적의 80%를 책임졌다.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푸조가 추구하는 미래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3세대로 진화하면서 기존 SUV 형태를 벗어나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적용했다. 또 사자 발톱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 파노라믹 아이-콕핏 등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했다.

호산 디렉터는 “디자인 과정에서 항상 ‘누가 이 차를 타게 될까’를 고민하는데 성별이나 연령보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상상한다”며 “3008을 디자인할 때는 아름답고 감각적인 제품을 좋아하면서도 기술에 관심이 많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이미지가 디자인 전반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 뉴 3008은 패스트백 루프라인 디자인을 적용해 공력성능을 한층 강화했다. 그는 “패스트백 실루엣을 통해 공기저항계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며 “전년 범퍼의 수직 옛지 디자인과 전체

적인 차체 라인 역시 공기역학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 뉴 3008은 SUV로서는 이례적인 0.28Cd라는 공기저항계수를 달성했다.

실내 디자인은 푸조의 디자인 정체성을 완성하는 곳이다. 파노라마 아이-콕핏을 최초로 적용해 운전자의 몰입감을 극대화했으며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감성과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또 콤팩트 스티어링 휠,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맞춰 단축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아이-토글은 미래형 조종석의 느낌을 제공한다.

호산 디렉터는 “아이-콕핏은 단순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운전의 감성을 극대화하는 경험”이라며 “실제 운전석에 앉으면 운전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조수석은 훨씬 넓고 개방적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 뉴 3008은 성공적인 2세대를 넘어 스스로를 다시 창조한 모델”이라며 “푸조의 디자인 철학 ‘매혹적인 디자인(Power of Allure)’을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한 차”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중소, 外人채용 1순위 ‘출신국가·한국어 능력’

중기중앙회, 1223곳 대상 조사  
97.8%, 외국인력 고용 한도 못미쳐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려하는 최우선 순위는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 비용과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의 절대다수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한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보다도 ‘내국인 구인난’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절대 다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채용시 고려사항 ‘우선 순위’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을 주로 꼽았다. 출신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어 소통 능력이 중요한 모습이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도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의사소통’(52.1%)을 주로 꼽았다. ‘작업 지시 오해로 생길 수 있는 생산 차질’ 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97.8%는 외국인 근로자를 한도에 미달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건비 이외 신청 수수료·숙식비 제공 등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이 주요 이유였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현대百貨 킨텍스점에 ‘코웨이갤러리’

아이콘 정수기·노블 공청기 등 전시

코웨이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7층에 브랜드 체험 및 판매 매장 ‘코웨이갤러리’를 새로 열었다.

11일 코웨이에 따르면 코웨이갤러리 현대 킨텍스점은 스타필드 고양 직영점에 이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두 번째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들이 코웨이의 다양한 혁신 제품을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체험하고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신규 매장에서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

드 ‘비렉스(BEREX)’의 ▲의료기기 마사지шет·코어셋 ▲트리플체어 안마의자 ▲스마트 매트리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아이콘 정수기 시리즈와 노블 공기청정기 등 베스트셀러 제품뿐만 아니라 코웨이의 혁신 기술력이 집약된 신제품까지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히티브 온풍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에 따뜻한 온풍 기능을 더한 신제품으로, 고효율 세라믹 발열체를 탑재해 실내 온도를 약 5도 높이는 데에 단 4분가량 소요된다.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日, 세계 3위 게임시장… 글로벌 확장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 스마일게이트, 日 법인 설립

日 게이머, 내러티브 중심 소비성향  
모바일 게임 안정적 점유율 유지  
시장 환경 반영 신작게임 기획·개발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은 닌텐도와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등 세계적 게임 기업의 본거지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른바 ‘게임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일본 게임 시장은 글로벌 산업 내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게임 시장이 2033년까지 약 600억 달러(약 87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솔과 IP 중심의 전통 강자 구조 위에 모바일과 PC 플랫폼이 공존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11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러한 환경을 감안해 일본을 글로벌 확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설정했다. 2024년 10월 도쿄에 일본 오피스를 개설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법인 운영에 돌입했다. 일본 법인은 일본 시장에 특화된 사업 전략 수립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서비스 확대를 뒷받침하는



스마일게이트 일본 자사 직원들.

/스마일게이트 뉴스룸 갈무리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스마일게이트 일본 사업을 총괄하는 이원규 이사는 일본 법인 설립 배경에 대해 “일본은 세계 3위 규모의 게임 시장으로, 글로벌 확장을 위해 반드시 공략해야 할 핵심 지역”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산업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일본 법인을 전략 실행 조직, 이른바 별동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이사는 “현지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조율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본 법인의 핵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본 게임 시장의 특징으로는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사업전략기획실 이규하 실장은 “일본 게이머들은 승부나 효율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세계관에 깊이 몰입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른바 ‘오시 문화’가 소비 패턴과 취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토리 와 감정선을 중시하는 내러티브 중심의 소비 성향 역시 일본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감정 공유 문화도 일본 시장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평균에는 비교적 내성적인 편이지만, 감정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SNS를 통해 감동이나 분노, 사건을 빠르게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반응 구조가 흥행과

마케팅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여전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PC 플랫폼의 성장세도 뚜렷해졌다. 일본 게이머들 역시 내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일본 법인은 이러한 시장 환경을 반영해 신작 게임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본사 사업부와 협업하고 있다. 이원규 이사는 “일본 시장에서 확보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 단계부터 관련 사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IP 홀더와의 협업이나 신규 콜라베레이션 발굴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국 본사와의 협업도 밀착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규하 실장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본사를 방문해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화상회의와 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한다”며 “최근에는 프로젝트 논의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위해 본사 인력이 일본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전략의 성과는 도쿄 게임쇼 참가를 통해 가시화됐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도쿄 게임쇼에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공개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시연존이 연일 만석을 기록하며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고, 유저들은 튜토리얼과 캐릭터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며 게임 세계관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시’는 LED 타워를 활용한 전시 연출과 체험 중심 설계로 주목을 받았고, 관련 영상이 현지 SNS에서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바이럴 효과를 냈다. 현지 미디어와 마케팅 업계의 문의도 이어졌다. 스마일게이트는 도쿄 게임쇼를 계기로 일본 시장에서 그룹과 신작의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네이버, ‘빅테크 텃밭’ 美서 UGC 승부수

(이용자 생성 콘텐츠)

네이버 유허브, ‘싱스북’ 美 공개 앞뒤  
SNS 형태 플랫폼 가능성에 무게  
美 시장 최우선 고려해 개발·출시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미국 시장에서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기반 신규 서비스로 정면 승부에 나선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 네이버 유허브는 현지 출시를 목표로 한 신규 서비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서비스명은 ‘싱스북(ThingsBook)’으로, 이용자가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UGC 기반 서비스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형태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는 정식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창작자 모집에도 나섰다. 해당 서비스를 주요 무대로 활동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한 행사도 조만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중 미국 현지에서 실제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도는 기존 해외 진출 방식과 결이 다르다. 네이버는 그동안 밴드 등 국내에서 성공한 서비스를 해외에 확장하는 전략을 취해왔지만, 싱스북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미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발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의 검색, 유튜브의 동영상, 인스타그램의 SNS 등 글로벌 빅테크 서비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AI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확보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블로그와 카페 등

UGC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국 이용자 성향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콘텐츠와 창작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네이버는 2000억원 규모를 콘텐츠 투자와 창작자 보상에 투입할 계획이다. AI 생태계에서 창작자의 기여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협업도 병행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일본 콘텐츠 플랫폼 노트에 20억엔 약 187억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노트 지분 약 7.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양사는 노트의 콘텐츠 생태계와 네이버의 UGC·웹툰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플랫폼과 AI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 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스테디셀러 공개

‘픽 미 업!’ 등 3편 선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안정적인 인기를 이어갈 웹툰·웹소설 스테디셀러 3편을 공개했다. 선정작은 판타지 웹툰 ‘픽 미 업!’, 액션 웹툰 ‘레드스톰-왕의 귀환’, 현대판타지 웹소설 ‘괴담에 떨어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로, 모두 장기간 랭킹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 저력을 입증한 작품들이다.

웹툰 ‘픽 미 업!’은 헤르모드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작품이다. 극악 난이도의 모바일 게임 세계에

떨어진 주인공이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단전을 공략해야 하는 설정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전투 연출이 특징이다.

‘레드스톰-왕의 귀환’은 노경찬 작가의 대표 무협 IP ‘레드스톰’ 시즌2로, 시즌1 종료 이후 약 5년 만에 선보인 후속작이다. 사막의 무신으로 성장한 주인공이 다시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투와 세계관을 전면에 내세웠다.

웹소설 ‘괴담에 떨어저도 출근을 해야 하는구나’는 괴담이 실재하는 세계에서 이를 처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서현 기자

## SKT ‘A.X K1’, 국내외 호평 잇따라

519B 규모 초거대 모델

SK텔레콤 정예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 500B 급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이 공개 직후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에이닷엑스 케이원은 약 4개월 동안 519B 규모의 초거대 모델로 개발됐음에도 주요 벤치마크에서 ‘딥시크 V3.1’ 등 글로벌 AI 모델과 유사하거나 앞선 성능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7일 에이닷엑스 케이원 모델의 기술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나흘만에 모델 다운로드 수가 8800여 건으로 급증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에이닷엑스 케이원에 대한 관심이 큰 이유는 높은 확장성에 기인한 것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SK텔레콤 부스를 찾은 시민들이 ‘A.X K1’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시스

으로 풀이된다. SNS에서는 에이닷엑스 케이원이 자유로운 사용과 배포가 가능한 ‘아파치 2.0(Apache 2.0)’ 라이선스로 공개된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전세사기, AI로 계약 전 사전 차단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연구용역 마무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세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위험을 선제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범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협업해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다. 또한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정상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적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진은 향후 데이터 범위와 품질이 확대될 경우 사전탐지 모델의 성능이 추가로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유동성 장세 끝?... 삼성 등 ‘실적장세’ 코스피 끌어 올린다

재정·통화완화로 실적 개선 기대  
코스피 실적 전망치 3개월새 19% ↑  
삼성전자 호실적, 이익개선 기대 접화  
外人 1.5조 순매수, 유가증권 집중유입  
증권가 목표 상향... 4600~6000 제시

주식의 향방을 가를 키워드로 실적이 떠올랐다. 유동성의 힘과 실적이 합쳐질 경우 코스피 6000도 거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재정과 통화의 수도꼭지를 열면서 흘러넘친 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고, 이는 기업 실적을 끌어올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실적 장세에 불을 붙인 것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연결기준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2.71%, 영업이익은 무려 208.17% 증가했다. 한때 ‘4만 전자’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최근 14만원을 돌파하며 급등하고 있다.

실적 기대감은 전체 상장사로 확산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



코스피가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33.95 포인트(0.75%) 오른 4586.32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사 3곳 이상의 전망치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93개의 지난해 연결 기준 4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액(1월 9일 기준)은 56조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 47조2908억원 대비 19.48% 오른 수치다. 상승률은 기계·장비가 62.39%로 가장 높았고, 전자·전자(47.72%), 제조업(25.88%), 증권(17.13%)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전체 실적도 장밋빛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35곳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44.1%나 급증한 430조812억원이

다. 매출 추정치는 전년(3045조9644억원) 대비 8% 오른 3289조4102억원이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원투펀치 실적 눈높이 상향조정 릴레이가 2026년 코스피 지수 전망 변화의 직접적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전망치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스피200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384조원으로 지난해(280조원)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정 정책은 기업과 증시에 활

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27조9000원의 ‘조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과 공공·민간 투자 확대, 수출 여건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경기 회복의 전환 국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코스피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아직이라던 입장을 바꿔 이젠 목표가를 5650으로 올려잡은 곳까지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코스피가 4600 선은 넘을 것이라고 봤고, 반도체 실적이 추가로 상향되는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6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다.

## ◆글로벌 큰 손 한국 증시로

탄탄해진 기초체력은 외국인을 불러 모은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인 지난해 한국 상장주식 1조524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730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1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은 1조6000억원, 미주 4000억원, 아시아는 3000억원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1조원, 영국이 800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한국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1326조8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0.8% 수준이다.

국제 증권사 CLSA는 한국 증시 전망 보고서를 내고 “한국 주식시장은 올해도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CLSA는 “외국인 지분율이 35% 수준으로 과거 20년 평균(33%)과 비슷해 여전히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도 안정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았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금은 신흥시장으로 분류돼있다.

4월엔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도 예정돼있다. 정부는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총 560억 달러(약 81조8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국제 시장에 유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자본시장 정책 탄력... 증권사 실적 기대 ‘쑥’

자본시장 활성화에 투자심리 회복  
거래대금 증가, 브로커리지 수익확대  
주요 5사 영업익 8조 전망, 3.8% ↑  
대형사 실적개선에 IMA·STO도 주목

증권업종의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삼성·키움·한국투자·NH투자증권 등)의 올해 연결 기준 합산 영업이익은 8조798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추정치 7조7817억원) 대비 3.83% 늘어난 것이다.

삼성증권의 영업이익은 1조4646억원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비 10.1% 늘어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9.1%), NH투자증권(5.0%), 키움증권(4.7%) 등도 4~9%대 성장이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조268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이다. 지난해 96.76% 급성장한 기저 효과 때문이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제제 강화 등 구조 개선 효과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 맞물렸다.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증시 훈풍도 힘을 더했다. 지난해 코스피는 75.6% 상승했으며,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높여가고 있다.

인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거래대금 증가세와 브로커리지 기반 증권업종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국내 증시의 증가가 연고

점 부근에서 강하게 형성됐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이 국내 증권사의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증시 활황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춤했던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살아날 것으로 보여진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고,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사업을 통해 수익 다각화가 가능한 대형사를 중심으로 실적 가시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토근증권(STO)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성장 동력을 확보한 종목에 대한 선별적 접근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왼쪽부터)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류해일 손님 대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유승운 스톤브릿지벤처스 대표가 8일 THE 센터필드 W에서 열린 ‘하나 THE 발행어음’ 상품 출시 기념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증권

## 하나증권, ‘THE 발행어음’ 선보여

수시형 연 2.4%, 약정형 특판 3.4~3.6%  
1200억 한도판매... 소진 시 조기 종료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지원을 통한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선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9일 첫 발행어음 상품인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하나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하나 THE 발행어음’은 수시형과 약정형 두 가지로 구성된다. 개인 손님 기준 수시형은 세전 연 2.4%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약정형 특판 상품도 판매한다. 특판 상품은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개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며, 약정 기간에 따라 연 3.4~3.6%의 금리가 적용된다. 발행 한도는 12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하나증권은 전일 첫 상품 출시를 기념해 THE 센터필드 W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병선 제

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장에서 상품 가입 세례모니를 통해 하나증권 발행어음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행사에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의 능동적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나증권의 발행어음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해 금융의 선순환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자본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중견기업에는 회사채 인수와 신용공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자금 공급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발행어음 비즈니스 개시는 하나금융그룹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춰, 그룹 차원의 모험자본 공급 전략을 증권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허정윤 기자

## 신한운용, 현대차 핵심그룹주 ETF 담았다

‘SOL 자동차TOP3플러스’  
순자산 1200억 돌파, 한달새 300억 ↑  
현대차·모비스·기아 3종목 75% 편입

현대차그룹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전략이 주목을 받아 핵심 그룹주를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신한자산운용은 “현대차그룹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 중인 CES 2026을 통해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Physical) AI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트모에버, 기아 등 그룹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주의 강세로 ‘SOL 자동차TOP3플러스’는 최근 순자산 12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1개월 간 순자산이 300억원 이상 급증했다. 이 ETF는 현대차(26.48%), 현대모비스(24.77%), 기아(23.93%)에 약 75% 비중으로 투자하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오트모에버, HIL만도 등 협력사도 함께 담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자율주행·AI 기반의 미래형 제조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덩달아 현대차 그룹 핵심 계열사 편입 비중이 높은 ‘SOL 자동차TOP3플러스’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해외권역장, 부사장 등 최고위 임원 100여 명 이상을 CES 2026에 참석시켰다. 미국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사족보행 로봇 ‘스팟(Spot)’의 시연을 진행했다.

신한자산운용 김정현 ETF사업총괄은 “현대차그룹이 로봇·자율주행·AI 기반의 미래형 제조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그룹 전반의 구조적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 인정받은 K-전력망... 한전, 美 ‘번스앤맥도널’과 기술 계약

3년간 美 중부·텍사스 등 지역서  
초고압 송전망 건설사업 공동추진  
스마트그리드 민간 진출 교두보

한국전력이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초고압 송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대형 송전망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Burns & McDonnell) 본사에서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번스앤맥도널은 미국 전력·에너지 분야 1위 엔지니어링·건설사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구체화한 첫 성과다.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 전 주기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번스앤맥도널이 추진 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앞줄 세번째), 레슬리 듀크 번스앤맥도널 대표(앞줄 네번째) 등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사업에 설계 기술 검토와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약 600억 달러 규모의 765kV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

획이 추진되고 있다. 양사는 2026년부터 3년간 미국 중부와 텍사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한 번스앤맥도널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

결합이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독보적인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이

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전력 인프라 고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향후 송전망 투자사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슬리 듀크 번스앤맥도널 CEO도 “765kV 기술 전문성을 가진 한전과 협력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사 기술역량과 현장 경험을 결합해 대규모 765kV 송전 프로젝트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향후 미국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미국 내 초고압 송전망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 변전 예방진단 시스템(SED) 등 한전의 핵심 전력망 기술과 이를 패키지화한 K-스마트그리드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신기술 수출 등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남, 열병합발전소 ‘완전 자동운전’ 구현

기동·열 공급 등 전 과정 최초 구축  
플랜트 디지털전환 기술력 입증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국내 최초로 열병합발전소 전 공정을 자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11일 한남에 따르면, 한남 화성지사 열병합발전소가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을 완료했다. 열병합발전소의 기동부터 정지, 출력 조정, 운전 모드 전환까지 전 과정을 운전원 개입 없이 수행하는 체계를 국내에서 처음 구현한 사례다.

이번 시스템이 적용된 화성지사는 2007년 준공된 500MW급 열병합발전소로, 가스터빈·배열회수보일러(HRSG)·스팀터빈과 각종 보조설비를 포함한 발전소 주요 설비가 모두 자동화됐다. 운전원이 발전 계통 연결 시간만 입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보조설비 준비, 터빈 계통 연결, 출력 조정, 열공급까지 전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화성지사는 2023년 지역난방 계통 자동화를 완료해 열 생산 중 발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 열병합발전소 완전 자동운전 시스템 시연회에서 한남 정용기 사장(왼쪽 다섯번째)이 한남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남

출력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GC(자동발전제어) 운전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발전 계통 자동화까지 더해지며 발전과 지역난방을 아우르는 플랜트 전체를 ‘원터치 오퍼레이션’을 구현했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기력발전 대비 운전 조건과 제어 로직이 복잡해 자동화 난도가 높다. 한남은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열병합발전소 중 최초로 완전 자동운전 체계를 구현하며 고도의 플랜트 DX(디지털전환) 기술력을 입증했다.

운영 측면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시간 예약 기반 예약운전 ▲전체 시

퀀스 통합관리 ▲자동 출력 조정 ▲비상 상황 자동 대응 기능 등을 통해 기존 수동 운전 대비 안정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고, 비계획 정지 발생률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스템은 설계부터 개발·검증까지 전 과정에 국내 기술만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외산 제어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발전 운영 시장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국내 기술 중심의 표준 플랫폼 구축, 해외 플랜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세종=한용수 기자

## 남부발전, ‘재생에너지 AI 데이터’ 구축

발전사 최초... 10만 건 공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 최초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유지보수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8일 부산 본사에서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완료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 10만개의 정상 및 비정상 이미지 데이터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AI 성숙 고도화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남부발전은 지난해 9월부터 과제를 수행해왔다.

남부발전은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설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중심으로 AI

가 학습 가능한 이미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실증 환경으로 제공하고, ㈜어드바이저토렌, ㈜보다와 협업해 데이터 수집과 AI 모델링을 진행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실제 설비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 AI 모델링에 활용된 데이터는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남부발전은 이번에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AI 허브’를 통해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진단, 예지정비, 안전관리 등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기후부, 한국형 녹색투자 늘린다

녹색채권 지원대상·범위 대폭 확대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탈탄소 투자 촉진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한다. 자금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

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활용,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 지원하던 이차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첫째 중소기업에는 3%포인트(p), 중견기업에는 2%p의 이차비용을 지원하고 2년차부터는 첫째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과거 중대재해 분석하고 과제 공유

한국농어촌공사가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재설계’에 나섰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주재로 ‘안전관리 강화 TF(전담반)’ 착수 회의가 열렸다.

공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전사적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 강화 TF를 구성했다. 이 TF는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안전관리 체계를 재설계하고, 이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이끄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사장은 “안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며 “과

거 사고에서 안전 체계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근본적·제도적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TF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제도와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 국민과 근로자가 안심하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산업재해 현황과 과거 공사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TF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건강창업의 모든 것!



Since 1996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 울산, 지역건설 살리기 성과… 하도급 2조2158억 ‘역대 최대’

지역업체 지원 강화로 하도급률 35% 공공기관·대형사 협약늘려 참여 확대  
만남의 날 297건 상담 협력사 등록  
44개 현장 점검으로 불공정 관행개선

울산시가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건설업체 지원에 나선 결과 지난해 하도급률 35% 목표를 달성했다.

시는 2025년 지역 건설 공사 하도급 금액이 전년 대비 7019억원 증가한 2조 215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역 건설 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 민간 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 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 건설사의 민간 공사 참여



울산시청.

/울산시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삼성물산 등 14개 대형 건설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영업도 펼쳤다.

민·관 협력으로 90개 건설 현장을

찾아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대형 건설사에 협력업체 등록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를 지속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97건의 매칭 상담이 이뤄졌다. 26개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 하도급 계약 금액 476억원에 대해 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 공사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법령 위반 사항은 등록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진단과 기업 신용 평가 지원을 강화했다.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돕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교

부,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건설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열어 건설산업기본법 해설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 정부 SOC 예산 축소,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형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2026년 지역 하도급률 37%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신규 과제 2개를 도입했다. 총 22개 세부 실천 과제로 확대·개편해 지역 하도급률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건설 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설탕이 누비전 600억 발행

창원시가 설 명절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 600억원 어치를 내놓는다. 창원시는 모바일 470억원, 지류 130억원 규모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설 발행액 2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규모다. 할인율은 10%로 정부가의무화한 9%보다 높게 책정됐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지류 각각 30만원으로, 최대 한도 구매 시 총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경주시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경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2월 4일 경주시청 앞천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민원상담 제도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 사항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제도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관련된 민원 가운데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은 물론 각종 건의 사항과 법률 상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 영천시

####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신설

영천시는 경북도 최초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장수축하금’ 제도를 신설하고, 90세 이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장수를 기원하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예우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보훈 정책의 상징성과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참전·보훈명예수당 수급자는 90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게 돼,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영천(경북)=김진수 기자 k0808862@

### 포항시

#### 한옥 건립 최대 4000만원 지원

포항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해 ‘2026년 한옥 건축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서부산 첫 ‘클래식홀’ 문 열었다

### 부산시 ‘낙동아트센터’ 개관

#### 987석 콘서트홀·292석 앙상블극장

부산시는 10일 오후 5시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 개관 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낙동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87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292석의 다목적 공연장인 앙상블극장으로 구성됐다. 개관 전부터 클래식 협연, 오페라, 합창, 실내악, 성악 등 다양한 시험 공연이 잇달아 매진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날 콘서트홀에서 열린 개관 공연에는 예술 분야 주요 인사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연은 1부 창작 교향곡, 2부 말러 8번 교향곡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특히 지역 작곡가가 낙동강의 역사와 생명을 주제로 작곡한 창작 교향곡 ‘낙동강 광파레’가 초연되며 비수도권에서 처음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8번은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와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 예술가 33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1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개관 페스티벌에서는 총 20개 작품, 27회 공연이 펼쳐진다. 자체 제작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독일 필른(WDR) 방송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킹스싱어즈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 부산 지역 예술 전공 고등학생, 대학생과 NAFO의 협연인 ‘미래 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 등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연들이 마련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캠페인 모습.

/경상남도

## 경남도, 고향사랑기부제 109억 모금

도·시군 합산 전년보다 43% 증가

경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모았다. 경남도는 2025년 도와 시군을 합쳐 총 109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76억원과 비교해 43% 늘어난 금액이며, 전체 기부 건수는 8만 8336건으로 집계됐다.

도 본청의 경우 목표액 1억 5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2억 500만 원을 달성하며 목표 대비 137%를 기록했다. 지난해 1억 3900만원보다 약 48% 늘어난 수치다.

기부자 연령별 분석 결과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뒤를 이었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직장인층이 기부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시군과 협력해 연중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진해 균형제,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 울산 고향사랑 박람회 등 주요 행사장에서도 시군 합동 홍보 부스를 설치해 제도를 알렸다. LG전자, 삼양식품, 우주항공청, 성우하이텍, 대흥알엔티 등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도와 시군이 함께 찾아가 직장인 중심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남=손병호 기자

## 경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 시동

강원도·시군과 발전계획 수립 착수

경북도가 강원도, 시·군 등과 함께 ‘중부내륙연계 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다.

경북지역 발전을 위해선 경북연구원이 2024년 10월 계획 용역에 들어가 최근 ‘조광역 상생발전의 교두보, 경북 백두대간권’이라는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 가운데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서는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생태자원의 친환경 활용과 산림휴양복지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국립 농생명치유복합시설 조성(상주) ▲백두대간 남산 힐링정원 조성사업(예천)이 들어갔다.

‘역사문화관광진흥 전략’으로는 ▲백두대간 부향담 체류형 관광지 조성(김천) ▲국가 e-스포츠 도시 조성 사업(예천)이 추진된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 구축’ 전략으로는 ▲2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상주) ▲경북 소재·부품·장비 특화 육성(영주) 등이 포함됐다.

이들 4개 추진 전략에는 모두 52개 세부 전략이 발굴됐다.

4대분야 전략 외 강원특별자치도와 의 연계 사업으로는 ▲중부내륙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3도 접경 마구령터널 주변 지역 연계협력 사업 등이 포함됐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 울진군, 봄철 산불대비 대응체계 대폭 강화

진화헬기 상시대기 체계 구축

울진군이 건조한 기후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산불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진화헬기 신규 배치와 담수지 정비를 통해 조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군은 2026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앞두고 산불 진화헬기 신규 배치를 비롯해 진화용 담수지 점검과 제빙 작업을 마무리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올해 1월부터 투입되는 진화헬기는 독일 BO-105S 기종으로, 최대 담수량

은 1,000L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운용되던 헬기(730L)에 비해 37% 향상된 수치로, 산불 발생 시 더 넓은 지역에 신속한 물살포가 가능해졌다.

진화헬기에는 조종사, 정비사, 급유사 등 3명이 탑승 이뤄 배치되며, 봄철 산불 위험 기간 중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출동과 진화까지의 반응 속도를 최소화해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산불 진화용 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지 12개소도 점검을 마쳤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中 시장 문열리나”… K-푸드, 한한령 해제 가능성 ‘주목’

지나해 對중국 수출액 18.5억弗  
美 이어 두번째로 큰 수출시장

농심, 중서 4개 법인 운영 중  
삼양식품, 한한령에도 유통망 유지  
CJ제일제당, 비비고 만두로 공략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 식품업체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한령이 완화될 경우 중국 시장 재확대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시장을 둘러싼 실적 개선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중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한령은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비공식 보복 조치로, 당시 국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 식품업체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미지.

내 식품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웰푸드(당시 롯데제과)는 중국 내 공장 운영 악화로 2019년 상하이·베이징 공장을 매각했고, 2023년에는 베이징 롯데식품유한공사까지 정리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가 중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전히 막대한 내수 기반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

면 지난해 1~11월 국내 식품의 대중국 수출액은 18억574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2년 20억 달러를 넘긴 이후 다소 주춤한 흐름이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식품 수출 시장이다.

중국 현지 생산과 유통망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한한령 완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심은 1996년 상하이 공장을 시작으로 현재 상하이·선양·칭다오·

연변 등 4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 법인은 2024년 기준 전체 해외 매출의 12.3%를 차지한다.

삼양식품은 한한령 국면에서도 중국 유통망을 유지하며 핵심 시장 지위를 이어왔다. 과거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중국 비중은 글로벌 시장 확대로 27%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삼양식품은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첫 해외 생산기지를 건설 중으로 2014억원을 투입해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6개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전량 중국 내수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한령이 완화되면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고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도 중국을 미주·일본과 함께 해외 ‘빅3’ 시장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베이징, 칭다오, 요성, 장먼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비비고 만두와 다시다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3분기 중국에서 138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한령 완화 기대는 식품을 넘어 패션·뷰티 등 소비재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무신사는 지난해 상하이에 첫 해외 매장을 열며 중국 시장에 재도전했고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은 역직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에도 해제 가능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내수 시장이 과거만큼의 소비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와 식품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정치적 변수와 내수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폭발적 수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이마트, ‘가치소비’ 겨냥 설 선물세트 확대

‘자연주의’ 설 선물세트 물량  
지나해 대비 20% 이상 확대  
사전예약 기간 최대 35% 할인

이마트가 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소비에 반영하는 ‘가치소비’ 트렌드를 겨냥해 친환경 선물세트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가치소비 PB 브랜드 ‘자연주의’의 설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0% 이상 확대하고, 사전예약 기간 동안 최대 3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최근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마트 측 자료에 따르면 자연주의 선물세트 매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신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설과 추석에는 자



이마트가 선보이는 다양한 자연주의 선물세트. /이마트

연주의 가공 세트 매출이 각각 72.4%, 41.7% 증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자연주의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10% 늘린 총 33종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저탄소 인증 사과 & 배 혼합세트’와 ‘저탄소 인증 한라봉 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과일 파손 방지 완충재를

100% 종이로 대체한 ‘저탄소 인증 트리플 사과 세트’ 등 ‘제로 플라스틱’ 상품 물량을 2배 늘려 친환경 가치를 높였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실속형 프로모션도 강화했다. 2만 9800원 균일가로 기획된 과일차, 찐전병, 전통음료 세트는 2+1 혜택을 적용해 교차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기농 견과 및 올리브유 세트 등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 개념을 적용한 ‘자유방목 블랙앵거스’ 정육 세트도 할인 판매한다.

이마트 성현모 친환경자연주의 카테고리 매니저(CM)은 “전 연령층에서 선물에 담긴 의미를 고려하는 가치소비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실속과 품격을 모두 갖춘 친환경 선물세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 롯데免, 관광 필수코스 ‘스타에비뉴’ 리뉴얼

外人 관광객에 체험형 문화공간 제공

롯데면세점이 명동본점의 상징이자 한류 관광의 필수 코스인 ‘스타에비뉴’를 전면 리뉴얼해 외국인 관광객 발길 잡기에 나선다. 롯데면세점은 약 4개월 간 공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명동본점 1층에 위치한 체험형 문화공간 스타에비뉴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조성된 스타에비뉴는 코로나 이전 연간 약 29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던 대표적인 K-컬처 명소다. 이번 리뉴얼은 ‘스타(STAR)’와 공간을 뜻하는 ‘이움(-IUM)’을 합친 ‘스타리움(STAR IUM)’을 콘셉트로, 최근 방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몰입형 전시와 체험 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워진 공간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입구의 ‘하이파이브 존’에는 롯데

면세점 모델들의 핸드프린팅과 MZ세대를 겨냥한 셀피용 미러 스페이스가 마련됐다. 중심부에는 가로 23.5m 규모의 터널형 LED ‘대형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K-팝 영상과 브랜딩 콘텐츠를 압도적인 몰입감으로 즐길 수 있다. 맞은편 ‘체험존’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게임을 통해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면세점 남궁표 마케팅부장은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K-콘텐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을 재단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오픈을 기념해 오는 2월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험존 게임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화보 촬영 패키지, 골든구스 운동화 등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캐리어 네임택 등 다양한 굿즈를 선물한다. /손종욱 기자

## 롯데百 “VIP 고객경험·혜택 고도화”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명명

롯데백화점이 올해부터 기존 VIP 포인트 제도를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순한 쇼핑 혜택을 넘어 희소성과 경험에 방점을 찍고 최상위 고객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에비뉴엘 큐레이션은 ▲스테이(STAY) ▲취진(CUISINE) ▲라이프(LIFE) ▲웰니스(WELLNESS) ▲스토어(STORE) ▲채리티(CHARITY) 등 6개 카테고리로 세분화된다. 고객들은 등급별로 지급된 포인트를 활용해 럭셔리 호텔, 파인 다이닝, 레저 등 하이엔드 콘

텐츠를 취향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경험형 혜택’의 확대다. 먼저 ‘스테이’ 부문에서는 불가리 호텔, 카펠라 리조트, 아야나 리조트, 울릉도 빌라쏘메 등 국내외 5성급 럭셔리 호텔 및 리조트 제휴를 대폭 늘렸다. ‘취진’ 부문에서는 미술관 레스토랑 제휴 확대와 더불어 한식 파인 다이닝 ‘기와강’, 아시아 최초의 소셜 와인 메뉴 ‘CMB 와인 익스피리언스’ 이용 혜택을 추가해 미식 경험의 품격을 높였다.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도 다채로워졌다. 세계 100대 명문 승마장인 ‘스티븐승마 클럽’과 연계한 프라이빗 클래스, KPGA 투어 박경준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 레슨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럭셔리 레



롯데백화점 스테이 부문에 있는 국내 럭셔리 리조트 빌라 쏘메, /롯데백화점

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최상위 등급인 ‘에비뉴엘 블랙’ 고객을 위한 혜택은 더욱 정교해졌다. 전문 아티스트가 캘리그래피와 핸드 드로잉으로 고객의 탄생화를 그려 넣은 ‘맞춤형 기프트’를 제공하며, 만찬과 공연이 결합된 ‘마티네 & 수아레’ 초대 혜택을 신설했다. 기존 골드바 선물은 ‘블랙 TTT’ 엠블럼이 새겨진 골드카드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해 소장 가치를 더했다. /손종욱 기자

## SPC삼립, 제주산 말차 디저트 5종 선택

‘말차코어’ 트렌드 반영

SPC삼립이 제주산 말차를 활용한 베이커리, 스낵 등 디저트 5종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제주산 말차 특유의 진하고 씹살한 맛과 디저트의 달콤한 맛을 조화롭게 살렸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말차코어(Matcha-core)’ 트렌드를 반영해 패키지 디자인에도 진한 말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베이커리는 총 4종이다. 제주 말차 커스터드를 넣어 깊고 진한 풍미를 살린 ‘제주말차 진한데니쉬’, 제주 말차 크림을 샌딩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강조한 ‘제주말차 진한롤케이크’, 폭신한 말

차 시트 사이에 말차 크림을 더하고 슈가 파우더를 토핑한 ‘제주말차 진한봇세’, 제주 말차 가루를 넣은 촉촉한 카스테라 시트에 제주 말차 커스터드를 더한 ‘제주말차 진한크림카스테라’ 등이다.

스낵 제품으로는 ‘누네피네 제주말차’를 출시했다. 바삭한 파이형 스낵 누네피네에 제주말차 페이스트와 달콤한 살구잼을 더해 조화로운 맛과 식감을 완성했다. 신제품은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SPC삼립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말차를 다양한 디저트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앞으로도 원료의 매력을 살린 디저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中 헬스케어 새 먹거리로… K-제약, 뷰티 등 영역 확장

휴온스 ‘휴톡스’ 중국 품목허가  
국내업계, 재생바이오·화장품 등  
경계 허물고 사업 영역 다양화

중국 헬스케어 시장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보툴리눔 독신을 앞세운 각축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재생 바이오와 스킨부스터 등으로 사업 영역도 확장되는 모습이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바이오파마가 ‘K보톡스’ 후발 주자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 아이메이커 테크놀로지를 통해 중국 국가 의약품관리국(NMPA)에서 ‘휴톡스(국내 제품명: 리즈톡스)’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휴톡스는 A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처방한 미용 및 치료용 의약품이다.

휴톡스 100단위는 중국 임상 3상에서 중증도 및 중증 기간 개선 목적으로 유효성, 안전성 등을 입증했고, 중국 NMPA 산하 의약품평가센터는 임상, 약학, 통계, 규제 적합성 등 4개 부문에서



국내 기업이 미래 중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인공지능 챗피터 생성 이미지.

기술심사 검토를 마쳤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향후 중국 전역에서 휴톡스 상용화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지역(마카오 및 홍콩 포함) 내 휴톡스 단독 수입 및 유통을 맡고 있는 아이메이커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이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과 협력 가능한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신속한 시장 안착이 전망된다.

국내 기업으로는 휴젤이 가장 먼저 중국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 진출해 있다. 2020년 10월 중국 NMPA에서 ‘레티보’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021년 2월에는 50단위를 추가 승인받는 등 휴젤은 제품군을 강화해 글로벌 마일스톤을 확보해 왔다.

휴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의료성형기관 중 약 85%에 해당하는 6800여 곳에 레티보가 공급되고 있고 레티보 시

장점유율은 15% 수준이다. 또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휴젤의 보툴리눔독신 및 더마필러 전체 매출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매출의 비중은 47%에 달한다.

보툴리눔 독신뿐 아니라 재생 바이오에 중점을 둔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의료기기에서 화장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화장품 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글로벌 뷰티편집숍 세포라 차이나에서 ‘리쥬란코스메틱’을 선보인다. 1월 온라인몰에서 선공개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중국 전역 약 200개 오프라인 매장에 동시 입점한다. 세포라 차이나가 신설한 ‘더 넥스트 빅 씽’ 코너에서 소개되며 파마리서치가 재생 의학을 기반으로 특허받은 PDRN 기술을 집약한 스킨부스터 제품군을 다수 내놓는다.

파마리서치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 항노화 등에 쓰이는 신소재인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와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활용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해 온 가운데, 이미 ‘리쥬란’을 앞세워 ‘K-P

DRN’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리쥬란은 안면부 주름 개선 목적의 의료기기로, 2014년 국내 출시 후 2020년 중국에서 2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리쥬란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59%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와 함께 파마리서치의 분기별 수출 실적도 5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519억원, 505억원의 수출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은 전체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는 수출국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헬스케어와 뷰티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며 한때 단순 소비재 시장보다는 까다로운 규제와 인증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중국은 압도적인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에스테틱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자체 기술력과 신뢰도를 앞세운 세분화된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SK바사,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주’ 도입

바이오·제약 기업 ‘사노피’와 협력  
생후 6주~24개월 미만 영아 사용 가능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사노피 한국법인과 협력해 4가 수막구균 접합백신 ‘멘쿼드피주’를 국내에 신규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영유아 및 소아 대상 국내 유통과 공급을 맡는다.

사노피가 개발한 멘쿼드피주는 생후 6주 이상부터 55세까지 접종 가능하며 수막구균의 주요 혈청형인 A·C·W·Y로 인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을 예방한다. 특히 국내에서 허가된 A·C·W·Y 수막구균 백신 가운데 혈청형 A를 포함하면서 생후 6주~24개월 미만 영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멘쿼드피가 유일하다.

멘쿼드피는 완전 액상형 제형으로 별도 희석 과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접종 준비 과정을 간소화해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



4가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주 제품 이미지.

성을 줄인다.

접종 방식은 1회 접종량 0.5mL의 근육 주사다. 생후 6주~6개월 미만 영아는 총 4회, 생후 6개월~24개월 미만 영아는 2회, 2세~55세는 1회 접종을 실시한다.

수막구균 감염증은 콧물, 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며 증상 없는 보균자를 통해서도 감염 가능하다. 체내 비인두에 잠복하다가 특정 조건에서 혈류나 중추신경계로 침투해 수막염이나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선

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식 권고에 따라 영유아, 소아,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수막구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면역저하자, 실험실 종사자, 신입 훈련병, 대학 기숙사 거주자, 유행지역 여행·체류자, 유행 발생 시 접촉자 등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영유아와 소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감염병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예방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멘쿼드피 도입을 통해 국내 영유아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예방 선택지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감염병 예방 환경을 강화하고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리라푸그라티닙’, 1차 치료제로 개발확장

HLB그룹 임상 2상 결과 발표

HLB그룹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임상 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6)’에서 담관암 치료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을 주도한 프랑스 구스타브 루시 암센터의 앙투안 홀르백 교수는 “리라푸그라티닙은 고선택적 FGFR2 억제제로서 표준 치료에 실패한 FGFR2 융합 담관암 환자에게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임상 결과, 리라푸그라티닙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46.5%, 질병조절률(DCR)은 96.5%, 반응지속기간 중앙값(mDOR)은 11.8개월이다. 범-FGFR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군에서는 ORR 23%, DCR 77% 등을 기록하며 항종양 활성을 보였다.

담관암 1차 치료제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전 화학요법 및 FGFR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군(11명)에서 ORR 63%, mDOR 9.2개월,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11개월 등이 나타났다.

안전성 데이터도 확보했다. 흔히 관찰된 이상반응인 구내염, 수종증후군 등은 FGFR2 억제 기전과 관련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FGF R 억제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알려진 고인산혈증과 설사 발생률은 각각 20.7%, 21.6%로, 기존 약물인 페미가티닙(고인산혈증 60%, 설사 47%)과 푸티바티닙(고인산혈증 85%, 설사 39%) 대비 낮은 수치다.

HLB그룹은 우선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담관암 2차 치료제로 리라푸그라티닙 신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 팜퍼스, 2026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 출시

한국P&G 흡수력·착용감 강화

한국P&G는 기저귀 브랜드 팜퍼스에서 고급 아기 기저귀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사진)’를 2026년형으로 재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팜퍼스는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착용하는 상황을 반영해 ‘터치 오브 네이처 팬티’ 소재, 흡수력, 착용감 등을 강화해 왔다.

팜퍼스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2026년형 신제품은 100% 오가닉 순면을 활용해 과한 습기, 마찰력 등 피부 자극 요인으로부터 아기 피부를 보호해



준다. 또 팜퍼스만의 얇지만 우수한 흡수력이 기저귀 속 축축함으로 인한 피부 자극 걱정을 최소화한다.

안감에는 알로에와 시어버터를 각각 55ppm 함유한 로션이 더해져 아기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준다.

/이청하 기자

## “3m 대형 얼음 조각 보러 오세요”

신세계사이먼 파주 아울렛

신세계사이먼이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센트럴 스퀘어에 겨울 시즌 특별 콘텐츠로 대형 ‘얼음 조각 전시’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겨울철 아울렛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장에는 부엉이, 토끼, 펭귄, 여우 등 친근한 동물들을 형

상화한 얼음 조각 4점이 설치됐다. 최대 3m 높이에 달하는 투명하고 웅장한 얼음 조각들은 햇빛과 조명에 반사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이번 겨울 ‘매지컬 프로즌 빌리지(Magical Frozen Village)’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야외 스케이트장인 ‘아이스 가든’과 정해진 시간마다 눈이 내리는 ‘시계탑’에 이어, 이번 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전시된 얼음조각 작품

/신세계사이먼

음 조각 전시까지 더해지며 고객들에게 동화 속 겨울 왕국에 온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 교원그룹,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 팔 걷어

교원그룹이 유소년 스포츠 인재 육성에 나섰다. 1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김혜성 선수가 참여하는 '성적 연계 매칭기부'와 초록우산의 예체능 인재 지원 사업 '아이리더 캠페인' 후원 등 총 1억8000만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왼쪽부터)장동하 교원그룹 사장, 김혜성 선수,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 롯데바이오로직스, 인천서 '연합 봉사의 날' 행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에서 '연합 봉사의 날'을 열고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봉사단 '엘비하트(LB:Heart)' 등 참가자들은 문구, 간식, 방한용품 등을 한 데 구성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선물 세트는 지역아동센터 10여 곳에 배분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



#### 공영홈쇼핑,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 결의식

공영홈쇼핑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 재인증 결의식'을 갖고 소비자 중심 경영 제고에 나섰다. 결의식에서 공영홈쇼핑 임직원은 'CCM 실천 선언'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자 중심경영을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공영홈쇼핑 김영주 대표이사 공동대행(왼쪽 첫번째), 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오른쪽 첫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 NH농협은행, 청해초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전남 완도군 소재 청해초등학교에서 농촌 지역 아동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꿈을 응원하는 '우리 동네 빛나는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졸업식 현장을 방송 콘텐츠로 제작, 농촌 지역 아동들의 성장 이야기를 더 많은 시청자와 공유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12명의 졸업생 각자의 장래희망과 연계한 '드림키트'를 전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NH농협은행



#### 애경산업, 연탄나눔 행사… 1만1465장 전달

애경산업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랑과 존경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연탄 1만1465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은 소비자들의 이벤트 참여로 마련된 연탄 2465장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9000장의 연탄이 더해졌다. 또 애경산업은 섬유유연제, 소독터슈 등 생활용품을 담은 상자 200개를 함께 지원했다. /애경산업

## 권오갑, 노조 지부장 소통… “지속가능 발전 힘 모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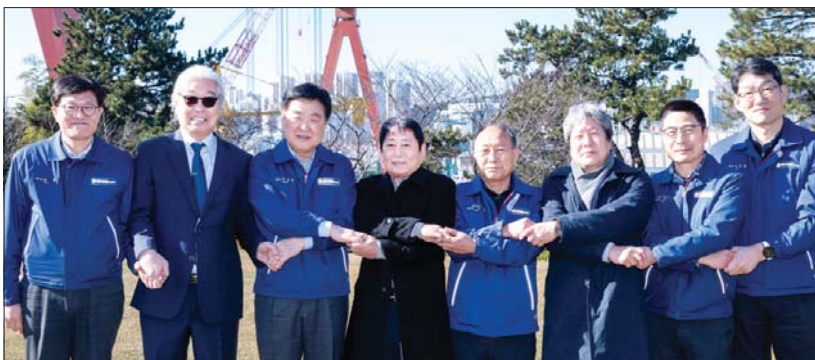
(HD현대 명예회장)

역대 지부장들과 오찬 간담회  
권 명예회장, 상생원칙 재확인

HD현대에는 권오갑 명예회장이 전임 노동조합 지부장들과 만나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견고한 노사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권 명예회장은 최근 울산 HD현대 중공업 영빈관에서 지난 2014~2023년 급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이끌었던 역대 지부장 5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명예회장은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거센 추격 등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전임 노조 지부장들과 상생 오찬을 가졌다(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정병모 20대 노조 지부장, 권오갑 명예회장, 백형록 21대 노조 지부장, 박근태 22대 노조 지부장, 조경근 23대 노조 지부장, 정병천 24대 노조 지부장). /HD현대

위해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HD현대에는 권 명예회장이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 사장 취임 이후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상생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명예회장은 지난 2023년 당시 박근태 지부장이 노조 활동으로

##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 샤힌프로젝트 현장 점검

울산 온산공장 방문… 안전 강조

샤힌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S-OIL) 최고경영자(CEO)가 울산 온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프로젝트의 안전한 완공을 거듭 강조했다.

에쓰오일은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가 울산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온산공장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현장 중심 경영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가 온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에쓰오일

을 강조한 이후 직접 공정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보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는 온산 공장 안전환경동에서 “모든 일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확인

## 한화, ‘우주의 조약돌’ 4기 성과 발표

“장기적으로 우주인재 발굴·육성”

한화는 지난 1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주과학 인재육성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4기 성과발표회와 수료식을 열고 200일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가 주최하고 KAIST가 주관하는 우주과학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이번 4기에는 4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수료생들은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우주과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진행했다.



‘우주의 조약돌’ 4기 수료식에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과 멘토, 수료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화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지구가 곧 멸망한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제2의 지구 탐색을 위한 우주망원경 ▲외우주 항해를 위한 탐사선 ▲태양계 마지막 우주정거장 ▲핵융합 기반 추진체 ▲심우주 항법 시스템 ▲수륙양용 착륙선 설계 등 6개 세

션으로 구성됐다. 수료생들은 6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완성한 제2의 지구 탐사 연구 성과를 선보였다.

4기 수료생 30명에게는 KAIST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 탐방, KAIST 영재교육원 수강 등 후속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기존 수료생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우주 분야 진로와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한화는 우주 분야에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장기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발사 능력을 발전시키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는 투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월관희 기자

## 해수부, 극지연구 분야 장학생 모집

해양수산부가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3년부터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다. 미래 극지연구를 주도하고 전문

적인 극지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도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0만 원 내외의 장학금을 최대 4학기까지 지원한다. 또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총회’(아이슬란드)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다음 달 13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감 중일 때 조용히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하며 “각자의 역할 수행 중 발생한 상황이 안타깝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임 지부장들은 “과거의 대립을 넘어 회사의 백년대계를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권 명예회장이 꾸준히 강조해 온 ‘현장 경영’과 ‘사람 중심 경영’의 연장선”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진정한 경쟁력으로 삼아 격의 없는 소통과 상생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이들 때까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거듭 또 거듭 점검해 달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찾은 알 히즈아지 CEO는 프로젝트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점을 언급하며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그는 “전사가 긴밀히 협력해 가동 시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회사는 물론 한국과 사우디 양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완성이 달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농식품부 직원 3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3명이 인사혁신처 주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승교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백신 공급체계 및 접종관리 개선, 백신매칭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구제역 발생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인 이승환 축산환경자원과 수의사무관은 발전소의 발전연료(유연탄)를 가축분뇨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내 최초로 추진했다.

왕희대 자유무역협정팀 농업사무관은 한미 통상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국내 농업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국장 우영제 △국가데이터 기획협력관 박상영 △국가데이터허브 정책관 정동욱

◆경인일보 ◇승진 △상무 김성규



#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 공동정범 책임 유효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최근 한 연예인의 ‘갑질 논란’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번지면서 연예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이 암암리에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보건의법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의법률’) 제5조 제1항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대상이다.

2020년 개정된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무면허 시술을 지시하거나 주선한 자 역시 법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시술을 받은 환자 본인은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주선하거나 영리 목적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연예인이 무면허 시술을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관계에서 의사의 형사책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개정된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의사가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비의료인과 공모해 이를 가능하게 했다면, 위 의사의 처벌 규정을 의료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보건의법률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의료법 규정과 보건의법률 규정의 병존관계에 있으며, 보건의법률 단속법은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을 갖고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사도 공동정범으로서 보건의법률 단속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의료법에 신

설됐더라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법률 단속법상 중대 범죄로서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대상이 의사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법원은 보건의법률 제5조 제1항의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하는 행위’의 해석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대했다.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고, ‘업으로 하는 행위’도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와 비의료인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보건의법률 단속법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다. 이는 의료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공고히 한 판례로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바른

## 정시 지방대 반등?... 관건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



김지수첩

이현진  
(정책사회부)

올해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에서 ‘서울=정답’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는 0.40대 1까지 좁혀지며 최근 5년 새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질렀다. 지방권 경쟁률은 5년 새 최고치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방대 반등’처럼 읽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순히 지방대 선호로 해석하는 것은 선부르다. 경쟁률 격차 축소는 “지방대가 좋아져서”라기보다 서울 진학에 따른 거주비 부담이 커진 영향

으로 풀이된다. 기숙사 자리를 놓치면 월세로, 월세가 버거우면 통학으로 이어지는 생활의 비용이 선택의 기준을 바꾼 것이다. 등록금에 더해 거주비와 생활비가 지고 고려하는 ‘총비용 경쟁’이 수험생 선택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수험생 선택의 언어가 ‘간판’에서 ‘생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지방권 경쟁률 상승은 ‘지방대 반등’이 아니라 ‘수도권 비용폭탄’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지방권 선택도 ‘하향’이 아니라 ‘선별’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종로학원 자료를 보면 지방권 지원은 일부 대학으로 집중됐다. 지거국 가운데 지원자 수 상위 대학은 ▲부산대 7551명 ▲경북대 6494명 ▲전북대 6292명 ▲충북대 5759명 ▲경상국립대 5568명으로 집계됐고, 지방 사립대 역시 ▲단국대(천안) 6212명 ▲계명대

5864명 ▲순천향대 5522명 ▲고려대(세종) 4350명 등 특정 대학으로 지원이 집중됐다. 지방권 경쟁률 상승은 ‘지방대 전반의 반등’이라기보다, 수험생들이 지역 내에서도 취업·전공 경쟁력, 정주 여건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선택지를 좁혔다는 신호로 읽힌다.

취업이 서울과 지방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서울 하위권보다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학업을 이어갈 경로를 택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경쟁률이 아니라 취업 데이터가 결정한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실제 성과로 축적돼 취업률로 확인될 때, 지방대에 대한 인식은 비로소 재평가될 수 있다.

/lh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12일 (음 11월 2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관음 기도 날이니 신년 기도를, 48년생 운이 약할 때는 잠시 복지부동하자. 60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적다. 72년생 가정사라도 내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순리. 84년생 과거 베풀어준 공덕이 돌아온다.



37년생 뒤늦게 이직이 웬 말인가. 49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 61년생 오후에 읍주는 절대적으로 사양해야 할 것. 73년생 친구 만나 돈 자랑하지 않도록. 8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기 오니 반갑다.



38년생 꿈을 안 믿을 수도 없으니 결단이 필요. 50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지출도 꼼꼼히 살펴라. 62년생 계산에 차이가 있다. 74년생 아침부터 사소한 사건으로 무능을 실감한다. 86년생 부모에게 돈을 버려지 말아야 할 스피드.



39년생 문서운이 갈하니 매매가 될 것이다. 51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가는 것이 세상 이치. 63년생 주식 투자는 내일 다시 신중하. 75년생 인쇄하다가 체통 잃고 대화가 단절된다. 87년생 뜻밖의 횡재수가 있다.



40년생 외부의 감언이설을 주의. 52년생 소금 장사 나가는데 비가 오는 격. 6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나 그래도 자중할 것. 76년생 수입이 늘어나니 품위가 달라지는 현실. 88년생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라 했다.



41년생 생각만큼 진전이 없다. 53년생 영업에 이익이 생기고 활력이 일어난다. 65년생 승진의 기쁨이 있다. 77년생 과거의 노력은 있었겠으나 여유 있을 때 베풀어 아할 듯. 89년생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는 들뜸 나서 모두 잃게 된다.



42년생 작은 고민이 있지만 문제는 해결된다. 54년생 절이 싫으면 절이 떠날 수 없으니 중이 떠나라. 66년생 신경질보다는 대화로. 78년생 능력은 있으나 발휘가 어려운데. 9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닌지 분석해 보는 것이.



43년생 삶의 질은 예습에서 결정되니 노력하라. 55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67년생 무리한 행동보다는 계획 하에 실행을. 79년생 노새노새 젊어서 노새 하다 차후에 슬픔만 남는다. 91년생 근거 없는 구설에 휘말릴 수이니 자제.



44년생 조상님의 기운으로 삶의 질이 평온. 56년생 인생은 언제나 늦는 것이 아니다. 68년생 차 바꾸는 것은 지출이 늘어난다는 의미. 80년생 무엇보다 운 좋은 것이 최상이다. 92년생 잘못된 투자로 다가를 미래에 외화내민 되지 않도록.



45년생 목표지점에 가야 하는데 길이 멀다. 57년생 생각을 바꾸면 답도 보인다. 69년생 일이 많아지지만 도와주게 되니 초조함을 버려라. 81년생 돈 달라는 형제로 고민이 많겠으나 해결책은 어디에도. 93년생 투자의 결실이 보인다.



46년생 신정이 엇그제 지났는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싸운다. 58년생 죽마고우(竹馬故友)도 신용에서 나온다. 70년생 옹피와 남의 험담하지 마라. 82년생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에 힘쓰자. 94년생 임춘대길 건양대경이니 마음을 포근히 하자.



47년생 나이가 들어 운전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니. 59년생 동료와 힘을 합치니 조직이 강화된다. 71년생 남녀 이성에 대해 삼각관계 만들지 않도록. 83년생 고목에 꽃이 피듯 재기할 수 있다. 95년생 삼재라도 내 뜻대로 되는 복 삼재이다.

## 김상회의四季

오복

오복(五福)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 (書經)의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유교적 사고의 뿌리에 기반한 것이지만 신체 오복은 그야말로 건강한 인생에 있어 건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행복한 인생의 기본이 되는 측면을 다룬 것이다. 서경에서 언급한 오복 중에도 두 가지가 장수와 건강에 관한 것이니, 유교적 가치에서도 사람답게 잘 살고 군자 지향적인 삶에서도 건강을 얼마나 중시 여겼는지 알 수 있다. 신체 오복은 치아가 튼튼하고 소화가 잘 되며,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것과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말함이니 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없으면 전신이 건강하다고 했다. 현대 의학 적에서도 틀린 얘기가 없다. 선조들이 중요하게 여긴 신체의 다섯 가지 복은 전인적 건강관리 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신체 건강의 기능인 것이다.

결국, 잘 먹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출하는 것이 요점이며 이 중 어느 하나만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진다면 건강의 적신호이자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서경의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그리고 고종명(考終命)인데 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부는 재물이 풍족한 것, 강녕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복된 삶의 기준으로 실로 그 어느 것도 뺄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기도 하다. 특히 자다가 잠자듯이 죽고 싶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이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니 어떤 복을 지어야 고종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사주 상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 대체로 평탄한 삶을 유지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9			
				8		3		7
7		2		6			1	3
				7				8
	3							4
	7			5				
1	6			3		5		8
4				6		9		
		9						6

				9	7	8		6
9	4							1
				6				
2							3	6
4								2
5		8						7
						3		
		8						2
	2		8	9	6			

9	2	7	1	9	6	8	5	3
1	2	8	6	8	9	9	2	7
8	6	9	2	8	7	1	9	1
6	8	9	7	9	1	8	2	2
9	7	1	8	6	2	1	8	9
2	8	1	9	2	8	7	6	9
8	1	8	9	9	6	2	7	1
1	9	2	8	7	8	9	1	6
7	9	6	1	2	1	8	9	8

1	8	9	9	6	8	7	2	1
6	2	9	1	9	7	8	8	1
7	1	8	8	1	2	6	9	9
1	7	1	6	2	8	8	9	9
2	8	1	6	9	1	1	8	7
9	9	8	7	8	1	1	6	2
8	6	2	1	7	9	9	1	8
8	1	2	8	8	9	9	7	6
9	9	7	8	1	6	2	1	8



# ‘서울-지방’ 정시 경쟁률 격차 0.40 대 1... 5년간 최소 수준

서울 앞지른 ‘대구·경북권, 충청권’  
서울권 지원자수 전년대비 1.0% ↓

지방권 학생, 서울 거주 비용 감안  
경쟁력 있는 지방권 대학 선택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과 지방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0.40대1까지 좁혀지며 최근 5년 새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권 정시 경쟁률은 5.61대1로 최근 5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고,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서는 이례적인 흐름도 확인됐다. 취업난과 경기 침체 속에서 수험생들이 비용 부담과 실리를 따져 지역 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권역별 평균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6.43대1, 충청권 6.30대1로 집계돼 서울권 평균 경쟁률 6.01대1을 넘어섰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의 평균 경쟁률이 서울권을 앞지른 것은 최근 5년 새 처음이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서울 거주비용 부담과 지방권 경쟁력 대학 지원 증가로 서울·지방 대학 경쟁률 격차가 줄어든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지원자 수 흐름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2026학년도 정시 전체 지원자수는 서울권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경인권은 5.1% 증가, 지방권은 7.5% 증가했다.

지방권에서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수는 2022학년도 60곳에서 2023학년도 55곳, 2024학년도 49곳, 2025학년도 43곳으로 줄었고, 2026학년도에는 20곳까

지 급했다.

정시 지원자수 기준으로는 전국 190개 대학 중 중앙대가 1만14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천대(글로벌) 1만1307명 ▲성균관대 1만296명 ▲건국대 1만042명 ▲한양대 9860명 순으로 많았다.

정시 경쟁률(모집인원 300명 이상 대학 기준)은 ▲서경대 15.49대1 ▲백석대 10.34대1 ▲계명대 9.99대1 ▲건국대(글

로컬) 9.94대1 ▲가천대(글로벌) 9.33대1 순이었다.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지방권 대학으로, 정시 경쟁의 무게중심이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방권 대학 가운데 지원자수가 많은 대학은 지거국에서 ▲부산대 7551명 ▲경북대 6494명 ▲전북대 6292명 ▲충북대 5759명 ▲경상국립대 5568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권 사립대는 ▲단국대(천안) 6212명 ▲계명대 5864명 ▲순천향대 5522명 ▲영남대 4826명 ▲고려대(세종) 4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상당수 수험생들이 서울 하위권 대학보다 지방권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권 명문대가 아닌 경우, 서울 진학에 따라 발생하는 거주 비용 부담을 감안해 거주지 인근에서 원하는 학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권 학생 일부는 불수능 영향 등으로 경인권 소재 대학에 하향 지원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권은 정시 모집 미충원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는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권 추가모집 규모는 ▲2022학년도 386명 ▲2023학년도 767명 ▲2024학년도 604명 ▲2025학년도 668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방권은 미충원에 따른 추가 모집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이다.

정시 선발 인원과 지원자 수를 종합할 때 정시 불합격자 수가 늘어 2027학년도 N수생이 전년 대비 약 7% 정도 증가할 수 있는 구도라는 전망도 나왔다. 종로학원은 정시 선발 인원, 지원자수, 정시 탈락 규모를 연도별로 비교해 이 같은 흐름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취업이 서울과 지방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실리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라며 “지방대학 집중 육성 정책과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경우 지방대에 대한 인식이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북한배경학생 ‘배움·정서·진로’ 지원

서울시교육청, 오늘부터 3박4일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 운영  
교사-학생 1대1 연결 맞춤형 멘토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경기도 일대 수련원에서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배경학생 겨울방학학교’는 2005년 시작돼 올해로 32회를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북한배경학생의 기초 학습 역량 강화와 학교생활 적응, 진로 역량 함양을 지원해 왔다. 이번 겨울방학학교는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을 1대 1로 연결하는 맞춤형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집중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배움으



2025 북한배경학생 여름방학학교 모습. /서울시교육청

로 자신감 UP!, 꿈으로 미래 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희망 교과 중심의 1대1 학습 지도 ▲정서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자기 이해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활동 ▲협력과 소통 중심의 체험·프로젝트형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1대 1 학습 멘토링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결손을 세심하게 파악해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멘토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 형성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에 참여한 멘토교사들은 방학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육적 보람과 성찰의 의미를 함께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 멘토교사는 “멘티 학생과 함께 공부하며 오히려 교사로서의 시선이 달라지는 경험이었다”며 “학생에게 믿음을 주는 멘토가 됐다는 보람과 함께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북한배경학생 방학학교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한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하며 배움과 진로, 삶을 함께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적용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내일 ‘국지도 86호선~화도’ 개통

도로 안정성 강화, 사고 예방효과 기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화도 4.3km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13일 전격 개통된다. 와부에서 화도까지 이동시간이 9분 줄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최근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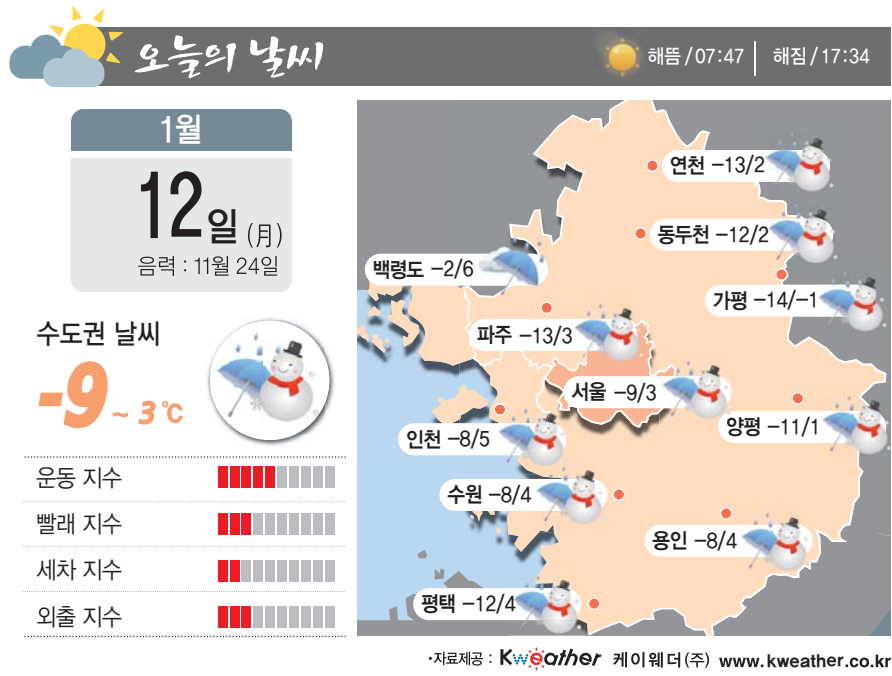
개통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km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굴곡이 심하

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이번 개통으로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북한강변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 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져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수도권 제1, 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는김용택 기자 mk4303@



▲ “미성년자 성적 묘사”...인도네시아, 머스크 A I ‘그록’ 전면 차단 /사진 뉴시스  
▲ 日 언론 “한일정상회담, 美·中 우선주의 속 ‘결속력’ 시험대”

▲ 이란 시위 2주...“최소 116명 사망·2638명 체포”  
▲ EU, 이란 반정부 시위 지지...역류자 석방도 촉구

▲ 미국무부, 베네수엘라의 미국민들에 “전원 즉각 철수” 경고  
▲ 美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 美 계좌에 예치...제3자 압류 차단”





한한령 해제 기대에  
한국 식품업계  
중국시장 재도전  
나

metro®

Life

K-제약·바이오  
中 헬스케어 시장  
새 먹거리로  
L2



# “장애가 무의미하게… 환경도 인식도 ‘턱 없는 세상’ 향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단법인 ‘무의’

홍 윤 희 이사장

대한민국 생활 현장 곳곳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턱’이 존재한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동선부터 경사로 없는 동네 가게,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시선까지 교통약자의 일상은 크고 작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 장벽을 하나씩 낮추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곳이 사단법인 무의다.

무의는 이동과 접근의 불편이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아래, 생활 공간 전반의 ‘턱’을 낮추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무의를 이끄는 홍윤희 이사장은 지하철과 동네 가게, 학교와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일상의 현장에서 장애와 이동의 불편이 더 이상 삶의 가능성을 가르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무의가 출발한 문제의식

무의라는 이름에는 ‘장애가 무의미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다. 홍윤희 이사장은 장애로 인해 이동과 접근이 제한되면서 일상의 선택지 자체가 줄어드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5년 기획한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지도’에서 구체화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딸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역안을 크게 돌아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은 경험이 계기가 됐다.

홍 이사장은 “아이가 지하철을 좋아했지만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는 것부터가 큰 장벽이었다”며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지하철 내부에 표지판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컸다. 그는 “표지판 설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이동 약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환승 지도 제작으로 방향을 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무의라는 조직 이전에 홍윤희 개인 이름으로 시작됐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환승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동 약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됐고, 개인의 시도는 점차 공동의 활동으로 확장됐다. 홍 이사장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불편과 공감의 쌓이면서 활동의 형태가 점차 넓어졌다”고 했다.

## ◆‘어쩌다 대표’로…무의를 선택하기까지

이러한 활동을 해오다가 2016년 무의는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준비하던 다른 창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당시 회사원이던 홍 이사장이 조직을 맡게 됐다. 그는 “회사



홍윤희 무의 이사장(가운데)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팀인 김남연 두루 변호사(왼쪽), 이충현 브라이튼 건축사무소 건축사(오른쪽)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의

장애로 인한 이동 제한에 문제 느껴  
이동약자 위한 환승지도 제작 시작해  
다수의 공감 모여 공동 활동으로 확장

이동·접근 환경 개선 프로젝트 펼쳐  
지하철 역사 안내체계 ‘모두의 지하철’  
가게 등 생활 문턱 낮추는 ‘모두의 1층’

물리적 환경 넘어 인식·제도 바뀌어야  
이동·접근이 당연한 기준인 사회 목표



를 다니고 있던 터라 정말 ‘어쩌다 대표’가 된 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홍 이사장은 이베이코리아에서 약 20년간 홍보 업무를 전담하다가 마지막 5년 동안 사회공헌 업무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육선 내 장애용품관을 운영하며 혁신적인 장애보조기구와 스타트업 제품을 발굴·소개·유통하는 프로젝트도 직접 기획·운영했다. 그는 “무의의 활동과 회사의 사회공헌 업무가 서로 의미를 보완하며 병행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의 활동은 지



사단법인 무의와 한국배려거인젤하임 직원들이 서울 중구 약수동 일대에서 경사로 설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철 환승 지도 제작을 넘어 조직 단위의 프로젝트로 빠르게 확대됐다. 공공 프로젝트와 협업 요청이 이어지며 병행의 한계는 점차 분명해졌다. 홍 이사장은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월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생활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보고 싶었다”며 무의 활동에 전념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모두의 지하철’·‘모두의 1층’…현장에서 제도로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동·접근 환경을 개선하면 결국 모두에게 편리한 구조가 된다



지난해 4월 사단법인 무의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과 함께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는 판단에서 ‘모두의 지하철’과 ‘모두의 1층’ 같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모두의 지하철’은 이동권을, ‘모두의 1층’은 접근권을 다루는 무의의 대표 사업이다.

‘모두의 지하철’은 2015년 환승 지도를 기획하며 꿈꿨던 안내 체계를 실제 역사 공간에 구현한 프로젝트다. 서울교통공사와 현대로템의 지원을 받아 이동 약자가 헤매지 않도록 표지판의 위치와 형태를 연구·설계했고, 올해 1월 시정역을 시작으로 시범 적용이 이뤄진다. 이후 10개 역으로 확대되며 2026~2027년에는 실제 이용 변화에 대한 임팩트 측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의 1층’은 동네 가게와 생활 공간의 문턱을 낮추는 접근권 프로젝트다. 경사로 설치뿐 아니라 접근 가능한 공간 정보를 축적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출범한 ‘모모탐사대’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 내 휠체어 접근성을 조사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활동으로, 지난해 10~11월 10개 학교의 이동 정보를 수집해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오픈데이터포럼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생활체육 영역에서도 무의의 문제의식은 이어지고 있다. 무의는 지난해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키움증권 후원을 받아 마라톤 대회 ‘키움런’과 연계한 배리어프리 지향 마라톤을 진행했다. 무의는 일반 마라톤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위축되는 현실을 고려해 기록 경쟁보다 함께 달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 ◆물리적 턱 넘어 인식의 턱까지…‘필요 없어지는’ 목표

홍 이사장은 접근권과 이동권 문제를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본다.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식과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경사로가 있어도 ‘장애인은 안 온다’는 인식이 있으면 의미가 없다”며 “반복된 불편은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나서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리적 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무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캠페인, 제도 개선, 당사자의 사회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는 더 많은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이 굳이 필요 없어지는 환경으로 가는 과정에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접근과 이동이 당연한 기준이 되는 사회로 가는 데 무의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무의의 활동을 특정 집단을 위한 운동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동과 접근이 제한되는 구조는 장애인을 넘어 고령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에서다. 그는 “특정한 사람을 배려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회 전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생활에서 드러난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와 공간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말레이오픈 3연패 쾌거  
…여복 준우승 /사진 뉴시스

▲‘스키 여제’ 린지 본, 알파인스키 월드컵 시즌 두 번째 우승

▲SK렌터카, PBA 팀리그 정규리그 우승…우리 금융, 피아비 앞세워 5R 1위

▲남자 U-20 아이스하키, 루마니아 꺾고 세계선수권 ‘전승 우승’

▲탈북 배우와 한 무대…연극 ‘통일 리허설’, 대하로서 초연

▲서초구, 사계절 축제 문을 여는 ‘신년 서리풀 갈라콘서트’ 개최